

시사 전체기사

존 로스 선교사 후손, 150년 만에 한국서 세례 받았다

입력: 2025-10-17 12:55 수정: 2025-10-17 16:02

한국으로 전해진 복음, 다시 한국에서 후손에게 전해져
존 로스 후손들의 한국 방문, 세계 선교사에 새 장을 열다



예장통합 부산남노회는 지난 14일 부산 거성교회에서 존 로스 선교사의 후손들에게 세례식을 가졌다. 김오룡 노회장이 로스 그림슨(왼쪽 세 번째)과 알렉산더 로스씨에게 세례를 베풀고 있다.

150여년 전 조선의 쇄국정책 때문에 선교사들이 내한할 수 없는 상황에서 한국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한글 성경을 번역해 한국 개신교 선교의 초석을 놓았던 존 로스(John Ross, 1842~1915) 선교사의 직계 후손들이 한국을 방문, 세례를 받았다. 한국에 복음을 전해줬던 선교사의 후손이 한국인에게 세례를 받은 것이다.

감동적인 현장은 지난 14일 부산 거성교회(김태준 목사)에서 열린 대한예수교장로회(예장) 통합 부산남노회 정기노회에서였다. 로스 선교사의 5대손 알렉산더 로스와 로스 그림슨씨는 이날 노회장 김오룡 목사의 집례로 세례를 받았다.

세례를 집례한 김 목사는 “이번 세례는 단순한 의식이 아니다. 150여년 전 존 로스 선교사를 감동시켜 한국인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신 바로 그 성령께서 한국인 목사에 의해 선교사의 후손들에게 세례를 베풀게 하셨다”며 “복음의 능력은 민족과 세대를 뛰어넘는다. 은혜의 순환이라는 측면에서 세계 선교 역사에서도 전례를 찾기 힘든 일”이라고 강조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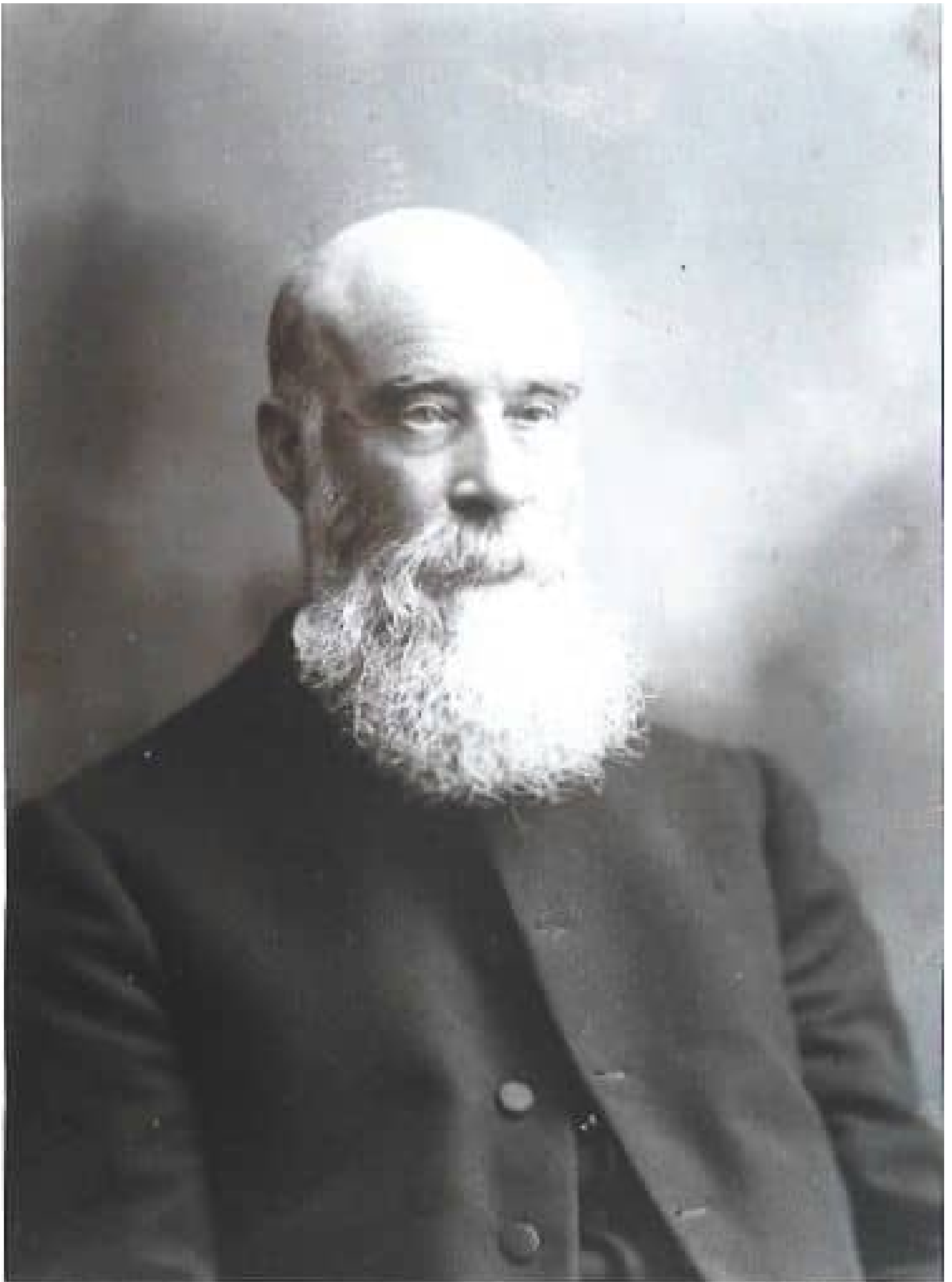
세례를 받은 알렉산더 로스와 로스 그림슨은 스코틀랜드 에든버러뉴톤교회(존 로스 기념) 교인으로 등록될 예정이다. 두 사람은 세례를 받은 후 “이번 부산 방문을 통해 하나님의 임재와 역사 속에서 세대를 잇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체험하게 됐다”고 고백했다.

존 로스 선교사는 1872년 스코틀랜드에서 중국으로 파송돼 선교 활동을 했다. 1874년 10월 당시 청나라와 조선의 국경인 고려문을 방문해 한국 상인을 만나 전도했다. 여관에 머물던 그에게 50대의 한 상인이 찾아왔고 로스 선교사는 그에게 한국어를 배웠다. 이때 로스는 그 상인에게 한문으로 된 신약성경과 ‘훈아진언(訓兒眞言)’이라는 성경 주석을 건넸다. 상인은 이를 아들과 친구들에게 주어 읽게 했고 이들은 훗날 한국 개신교 최초의 수세자들이 된다. 그 상인은 한국 첫 수세자 중 한 명인 백홍준의 부친이었다.

추천기사

“범사에 감사했더니... 성격·삶이 바뀌더라”





존 로스 선교사 생전 모습 사진으로 로스 선교사의 후손들이 이번에 새로 발견한 유품이다.

로스 선교사는 이후 1876년 재차 고려문을 방문해 의주상인 이응찬을 만났고 이듬해부터 선교사를 위한 한국어 교재인 '한국어 첫걸음'을 집필, 상하이에서 발간했다. 이 무렵 로스 선교사는 한글성경 번역을 시작해 이응찬과 한국인들의 도움을 받아 1878년 봄까지 요한복음과 마가복음을 번역했다.

로스 선교사는 조선의 문이 열릴 것을 믿으면서 성경번역 사업을 추진했다. 그는 스코틀랜드성서공회의 지원을 받아 성경을 출판했다. 로스 선교사는 한국어는 물론 한국의 소설과 역사, 문화를 익히는 데도 힘썼고 한문이 소수 학자층에게만 이해되고 있음에 비해 다수 민중의 문자인 한글은 습득이 용이하고 번역에서 한문보다 훨씬 정확하다는 것을 발견했다. 그는 1881년부터 1886년까지 만주 봉천 문광서원에서 한국인 번역자, 동료 선교사인 매킨타이어와 함께 번역 작업을 진행했고 1887년 우리나라 최초의 신약성경인 '예수성경 전서'를 출간했다.

이번에 한국을 찾은 로스 선교사의 후손들은 스코틀랜드와 잉글랜드, 호주 등지에서 흩어져 살고 있던 가족들로 마거릿 로스, 마리온 던킨, 로즈메리 로스 스티븐슨, 앤드루 스티븐슨, 헤더 스티븐슨, 앨런 그림슨, 나타샤 그림슨, 로스 그림슨, 존 로스, 존 로스 주니어, 알렉산더 로스, 헬렌 로스 등이다. 이들의 한국 방문과 세례는 로스 선교사의 헌신이 150년의 시간을 넘어 '복음의 온전한 순환'을 이뤘다는 점에서 큰 의미를 지닌다.



존 로스 선교사 후손들과 박준수(맨 왼쪽) 목사가 16일 부산 소정교회에서 열린 (사)코이노니아선교회 창립 15주년 기념식에서 인사하고 있다.

4대손인 마거릿 로스씨는 “영국을 비롯해 전 세계가 K-문화에 열광하고 있는데 부산에 와 보니 한국인들의 높은 문화 수준에 깊은 감명을 받았다. 그 뿌리에는 기독교와 존 로스의 한글 성경 번역이 있다”며 “로스 가문이 K-문화가 세계의 소망으로 더욱 확대되도록 민

간 대사 역할을 하겠다”고 밝혔다.

예장통합 부산남노회는 존 로스 선교사 후손들의 한국 방문을 기념해 지난 11일부터 20일까지 제1회 존 로스 포럼을 개최했다. 포럼에서는 에든버러대학교 마이클 노스코트 교수, 뉴욕 메디슨가 장로교회 담임목사 아론 잔클로스 박사, 에든버러뉴튼교회(존 로스 기념) 담임목사 박준수 박사, 마거릿 로스 변호사가 'K-문화와 세계의 소망'의 주제로 강연과 설교를 진행했다.

추천기사
 “이젠 연합-전략이다” 한목소리 낸 리더 1000명 제주 달궜다



(사)코이노니아선교회(이사장 김항재 장로, 회장 김주성 장로)는 지난 16일 창립 15주년 기념식을 부산 소정교회(이근형 목사)에서 열었다. 존 로스 선교사 직계 후손들과 부산남노회 회원, 지역 교계 인사들이 참석한 가운데 예배와 기념식, 기념 음악회를 진행했다.



존 로스 선교사 후손들이 16일 부산 이사벨중고등학교를 방문해 채플을 마친 뒤 학생들과 함께 단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이날 채규웅 공로목사는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 삶'(롬 8:14)을 주제로 목회 회고와 선교 열정을 나눴다. 채 목사는 로스 선교사가 암흑 시대 한국에 복음을 전하고 한글 성경을 번역했으며 띄어쓰기를 가르쳐 한글 보편화에 기여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신앙생활의 네 가지 원리인 말씀, 성령, 양심, 이성이 조화롭게 작용해야 하며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사명을 감당할 때 진정한 평안을 얻을 수 있다”고

설교했다.



16일 부산 소정교회에서 열린 (사)코이노니아선교회 창립 15주년 기념식에서 채규웅(오른쪽) 목사가 설교하고 있다. 채 목사는 눈 수술로 인해 선글라스를 착용하고 설교했다. 왼쪽은 통역을 맡은 박준수 에든버러뉴톤교회 목사.

김항재 이사장은 인사말을 통해 “코이노니아 선교 10주년 기념 책자 발간과 선교사들과의 협력을 통해 이룬 선교 열매에 감사하다. 존 로스 목사 기념 재건 교회와의 만남, 그리고 존 로스 목사가 개척한 16개 교회, 후손들과 140년 만의 만남을 주신 하나님의 섭리에 감사하며 약속의 말씀을 믿고 충성하자”고 당부했다. 김주성 회장은 환영사에 이어 마리온 던킨과 앨런 그림슨씨에게 감사패를 전달했다.


미국 텍사스주 휴스턴에 거주하는 김성철(82) 장로는 중국에서 자신의 외증조할아버지가 존 로스 선교사에게 세례를 받고 예수님을 영접해 장로로 헌신하며 섬겼던 사연을 소개했다.



(사)코이노니아선교회는 16일 부산 소정교회에서 창립 15주년 기념식을 가졌다. 기념식 뒤 존 로스 선교사 후손들과 참석자들이 함께 단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후손 중 한 명인 존 로스씨는 후손들을 대표해 답사했다. 이 자리에서 마거릿 로스 씨는 직계 후손 측에서 새로 발견한 존 로스 선교사의 생전 사진을 유품으로 전달해 참석자들에게 깊은 감동을 선사했다. 후손들은 16일 부산 이사벨중고등학교 채플에도 참여해 다음세대 청소년들과 교감하는 특별 시간도 가졌다.

추천기사
교인에게 낯선... 교회 공동체 떠받치는 '연대·행정의 핵'



존 로스 직계 후손들은 20일 출국 예정이며 일부는 박준수 목사와 함께 24일 장로회신학대(박경수 총장)를 방문해 존 로스 장학금을 전달할 예정이다. 장학금은 직계 후손과 에스겔선교회 이사장 김동호 목사가 지원했다.

부산=글·사진 정홍준 객원기자 jonggyo@kmib.co.kr

GoodNews paper © 국민일보(www.kmib.co.kr), 무단전재, 수집,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클릭! 기사는 어떠셨나요?

좋아요
16

화나요
0

후속기사 원해요
3

국민일보의 미디어선교사
미션프렌즈가 되어주세요

복음심은 국민일보를 군부대, 교도소에 배달하는데 정기후원으로 동역해주세요

후원하기



많이 본 기사

- 정치
- 경제
- 사회
- 국제
- 엔터
- 라이프
- TOP50

1 기준중위소득 6.51% 대폭 인상... 생계급여 월 200만원 이상 지원

2 한동훈 "이재명 계엄령 가능성"...민주당 "제정신이나"

3 조갑제 "조국, 내년 선거 별 가치 없는 존재된 듯"

상분야별 기사 더보기



4 이 대통령, 국유자산 매각 중단 긴급 지시... "혈값..."

5 '강남 집' 보유 국회의원 61명...5명 중 1명 다주...

국민일보가 꼼꼼히 읽어보고 선정한

오늘의 추천기사



"범사에 감사했더니... 성격·삶이 바뀌더라"



"이젠 연합·전략이다" 한목소리 낸 리더 1000명 제주 달궜다



교인에겐 낯선... 교회 공동체 떠받치는 '연대·행정의 핵'



루터의 개혁, 전도 도구 넘어 창조주 영광 드러내다



잘못 알려진 루터, 그 오해와 진실을 말하다

사회·화해의 선교 44년 "복음은 한일 묶는 힘"... 양국간 영적 다...

목사父子 학교 속으로 들어갔다 니... 아이들이 달라졌어요

"복음은 언어 뛰어넘어 역사... 1974년 한국서 배웠다"



라이브 뉴스

신앙 기반 교정, 재범률 낮추는 대안... '소망교도소' 세계 이목 0분전



김복유·월드비전, 크리스마스 콘서트 연다 11시간전



구세군 자선냄비 스마트폰으로 간편하게 기부하세요 11시간전



굿피플, 22억 규모 '사랑의 희망박스 박싱데이' 11시간전



[이상학 목사의 후보천리] 이제는 지긋지긋하다 11시간전



오피니언

보이스피싱과 중국인 총책 [한마당]



베이징에 독립운동 기념공간을
[특파원 코너]



박물관은 문턱이 아니라 품이어야 한다
[한승주 칼럼]



아픈 몸에 대해 말하기
[청사초롱]



간부의 정치학
[너섬情談]



엔터 많이 본 기사

1 서른네 살, 불꽃처럼 살다간 프로골퍼 故 '변현민'..."나를 잊지 말아요"



2 [앵글속 세상] "겁은 안 나요... 더 빨리 달리고 싶은 마음만 있죠"



3 손흥민 1골 1도움... LAFC, 서부 준결승 진출



4 가요무대 40년 빛낸 이미자의 특별 무대



5 손흥민 LAFC 데뷔골, MLS '올해의 골' 됐다



더 미션 많이 본 기사

1 [겨자씨] 페이지 터너의 은혜



2 [가정예배 365-11월 5일] 예수님을 따르려면(2)



3 [오늘의 QT] 주님을 의지한다는 것



4 "범사에 감사했더니... 성격·삶이 바뀌더라"



5 [오늘의 설교] 내가 확실히 아는 것



TOP50
최신뉴스
더 미션

전체
뉴스
신앙생활
생각+
더 미션
경제

경제일반
증권·금융
산업·기업
부동산·건설·교통
유통·소비자
IT
과학일반
오피니언
정치

정치일반
국회정당
대통령실
외교안보
북한·한반도
사회

사회일반
사건·사고
검찰·법원
교육·입시
복지·보건
환경·노동
전국
국제

국제일반
미국
중국
일본
유럽·러시아
기타
엔터

스포츠일반
야구
축구
골프
연예일반
영화·비디오
가요·방송사
드라마·예능
여행,
라이프

문화일반
음악·공연
미술·전시
출판·문학
생활일반
자동차
의학·건강
레저·여행
인류애충전소
K포럼

더 미션
오피니언
국민ONLY
지면기사
최신뉴스
만평
포토·영상
기획

정치
정치일반
국회정당
대통령실
외교안보
북한·한반도
국제
국제일반
미국
중국
일본
유럽·러시아
기타

경제
경제일반
증권·금융
산업·기업
부동산·건설·교통
유통·소비자
IT
과학일반

사회
사회일반
사건·사고
검찰·법원
교육·입시
복지·보건
환경·노동
전국

엔터
스포츠일반
야구
축구
골프
연예일반
영화·비디오
가요·방송사
드라마·예능
e스포츠

라이프
문화일반
음악·공연
미술·전시
출판·문학
생활일반
자동차
의학·건강
레저·여행
PLAY국민
TOP50
인류애충전소
여행,

서비스
기자뉴스룸
제보하기
신문구독
국민 리프린팅
K-PLUS(초판 PDF)
컨텐츠 구입문의
RSS
K포럼



회사소개 전화번호안내 광고안내 고충처리인
개인정보취급방침 청소년보호정책(책임자:남혁상) 미디어클럽
사이트맵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공원로 101 전화번호 02-781-9114
등록번호 서울 아04191 등록(발행)일 2016년10월31일 발행인 김경호
편집인 신종수
Copyright © KUKMINILBO All rights reserved.

NAVER 모바일 국민일보 채널 설정하기

지면기사기사제보RSS사이트맵

© 국민일보



부산남노회, 존 로스 선교사 후손 11명 초청, 우정과 신뢰 전해

Download to use extension (Free)

풀어

가을 정기노회에 선교사 후손 11명 초청, 우정과 신뢰 전해

김바람 기자 wish@pckworld.com

2025년 10월 17일(금) 17:26



부산남노회 김오룡 노회장이 지난 14일 거성교회에서 진행된 정기노회에서 존 로스 선교사의 5대손인 로스 그림슨(왼쪽)과 알렉산더 로스에게 세례를 베풀었다.



감사패를 전달하고 있는 모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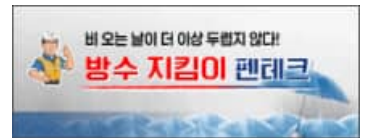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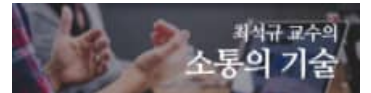
부산남노회(노회장:김오룡)가 이 땅을 위해 헌신한 선교사들의 후손을 초청해 세례를 베풀고 친교를 다졌다.

부산남노회는 지난 14일 거성교회에서 진행된 정기노회에 모두 11명의 스코틀랜드 선교사 존 로스의 후손을 초청했다. 이들 가운데 5대손인 알렉산더 로스(Alexander Ross)와 로스 그림슨(Ross Grimson)이 세례를 받았다. 세례식은 김오룡 노회장이 집례를 맡았다.

부산남노회, 존 로스 선교사 후손에 세례 베풀어

카드 뉴스

에즈라 진 목사와 중국 지하교회를 위한 기도



많이 보는 기사

- 1 포항동부교회 100주년, '100년의 충성이 100...
- 2 한교총 신임 사무총장 후보에 김철훈 목사 추천
- 3 총회 유지재단, 신임이사장에 김영걸 목사 선임
- 4 소망의 50년을 향하여 비전선포
- 5 충북노회 장안교회 화재로...

로스 가문은 직접 제작한 케이크(Quach)와 함께 스코틀랜드 국기와 태극기가 함께 새겨진 벤틀리를 부산남노회에 선물했다. 케이크는 두 손잡이가 달린 얇은 잔으로, 평화와 우정, 신뢰와 환대의 의미를 담고 있다.

150여 년 전 활동한 존 로스 선교사는 세계 최초의 한글 신약성경을 번역하고 한국 최초의 교회를 세운 서상륜 등에게 세례를 베푼 인물이다. 한때 스코틀랜드에서 한국어로 흘러왔던 복음이 다시 한국을 통해 선교사의 후손들에게 되돌아온 것이다.

김오룡 노회장은 "이번 세례는 단순한 의식이 아니다. 150여 년 전 존 로스를 감동시켜 복음을 전하게 하신 바로 그 성령께서 오늘도 민족과 세대를 넘어 역사하시며, 그때 시작된 은혜의 순환을 완성하신다는 증거"라고 말했다.

앞서 부산남노회는 장로교의 본산지이자 존 낙스가 종교개혁을 이끈 중심지인 스코트랜드 에딘버러에 선교사를 파송했다. 이곳 에딘버러에 위치한 뉴톤교회는 존 로스 선교사를 파송한 교회지만, 출석교인이 없어 일반인에게 매각됐었다. 이를 안타깝게 여긴 박준수 목사와 부산남노회 소속 교회들은 뉴톤교회를 매입하고 법인을 세워 지난 4월 뉴톤교회를 재건하는 데 성공했다. 그 뒤 부산남노회는 스코틀랜드 에딘버러, 영국 런던, 미국, 호주 등 전 세계에 뿔뿔히 흩어져 있는 존 로스의 직계 후손들을 찾아 나섰고, 모두 11명을 초청했다. 이렇게 찾아낸 후손 가운데 두 사람이 자신들의 선조의 업적에 대해 알게 됐고, 회심했다. 세례교인증명서는 에딘버러뉴톤교회에서 발급되지만, 한국에서 세례를 받고 싶다는 당사자의 요청으로 부산남노회에서 세례식이 진행됐다.

부산남노회는 존 낙스와 존 로스로 이어지는 장로교 신앙과 역사의 가교 역할을 담당하며, 장로교 본산지 스코틀랜드 교회와 한국 교회의 복음적 유대를 한층 더 깊게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앞서 노회는 지난 4월 2일 스코틀랜드교회 로시안앤보더스노회와 자매결연을 체결하고 양 노회 임원과 존 로스의 직계후손들이 함께 참여한 가운데 1747년에 설립된 에딘버러뉴톤교회의 헌당식을 진행하기도 했다.

부산남노회는 또, 산하교회와 코이노니아선교회(이사장:김항재) 등 유관기관들과 협력해 지난 11일 개최한 제1회 존 로스포럼을 이어가고 있다. 존로스 포럼은 20일까지 열리며 강사로는 마이클 노스코트 교수(에딘버러대학교), 아론 잔클로스 목사(뉴욕메디슨가장로교회), 박준수 목사(에딘버러뉴톤교회), 존 로스 4대손인 마가렛 로스 변호사가 'K-문화와 세계의 소망'이란 주제로 강연과 설교를 한다.

마가렛 로스는 "영국을 비롯해 전 세계가 K-문화에 열광하는 가운데 부산을 방문해 한국인들의 높은 문화 수준에 깊은 감명을 받았다"고 말했다. 이어 "그 뿌리에는 기독교와 존 로스의 한글성경 번역이 있다"며 "로스 가문은 K-문화가 세계의 소망으로 더욱 확대될 수 있도록 민간대사 역할을 지속하고자 한다"고 전했다.

또한 4대손으로 호주에서 방문한 존 로스는 "제 선조에 대한 보다 체계적인 학문적 연구가 이뤄지길 소망한다"고 말했다.

김바람 기자

김바람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

오늘의 가정예배



아카이브 지면보기



Only 2 Steps

Download to use extension (Free)

Click "Download"

Add Privacy Guard for Chr



부산남노회, 존 로스 선교사 후손에 세례 베풀어

2 한교총 신임 사무총장 후보에 김철훈 목사 추천



2 함해노회 제199회 정기노회



3 총회 유지재단, 신임이사장에 김영걸 목사 선임



3 대봉교회 임직예식

4 소망의 50년을 향하여 비전 선포



4 충북노회 장안교회 화재로 교육관, 장애인 숙소 등 전소



5 충북노회 장안교회 화재로 교육관, 장애인 숙소 등 전소



5 총회 5차 공과, 신앙의 일상화 목표



한국기독교공보소개 | 기사제보 | 광고안내 | 광고검색 | 지사장모집 | 대한예수교장로회총회 | 불편집고 | 개인정보보호정책 | 청소년보호정책 | 새생명 새빛운동

Download

to use extension (Free)

Only 2 Steps

Click "[Download](#)"

Add Privacy Guard for Chrome™

한국기독교공보

등록번호 : 서울, 아04291 | 등록일자 : 2016년 12월 22일 | 이사장 : 정훈 | 발행인 : 이순창 | 편집인 : 이재규 | 편집국장 : 이수진
서울특별시 종로구 김상옥로 30, 1402호(연지동, 한국기독교연합회관) 사업자번호 : 208-82-01308 청소년보호책임자 : 황해선
편집국: 02) 708-4713~6 / 4720(fax) 총무국: 02) 708-4710~2 / 4708(fax) 광고국: 02) 708-4717~9, 708-5025/4707(fax)
법인 : 재)대한예수교한국기독교공보사 외부필자 원고는 본보 편집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 Copyright (c) by 한국기독교공보 All rights reserved.

[Privacy and cookie settings](#)

Managed by Google. Complies with IAB TCF. CMP ID: 300



트렌딩

성평등가족부

손현보

다니엘기도회

정기

○ 기독

○ 일반

미

구독신

로그

총회 11월 05일 수요일

교판

판

주

청

인

Q 검색

기독일보



정통 성경적 성교육 강사양성
에이랩 아카데미

성폭력/성매매 예방 법정 의무교육
성경적 성가치관 교육
음란물 예방 및 근절교육
성경적 결혼관 등

ALAF+
02-420-7100

이 광고를 클릭하시면 바로 홈페이지로 연결됩니다.

교단/단체 · 입력 2025. 10. 17 20:02

한글성경 번역자 존 로스 선교사 후손들, 한국에서 세례 받아

부산남노회 정기노회서 세례식 진행

기독일보 장지동 기자(zidgilove@cdaily.co.kr)

✉ 글자크기 + -

공유하기 23개

👍 좋아요 7.5만개

게시

트랜딩 성평등가족부 손현보 다니엘기도회 정기 ○기독교 ○일반 미 구독신 |로그
총회 박태원 교관 관 수 장 인

전체.



스코틀랜드 선교사 존 로스의 5대손 세례식 참석자 단체 사진. ©대한예수교장로회 부산남노회 제공

교단·단체

선교

스코틀랜드 선교사 존 로스(Rev. John Ross, 1842-1915)의 5대손인 알렉산더 로스(Alexander Ross)와 로스 그림슨(Ross Grimson)이 지난 14일, 대한예수교장로회(통합) 부산남노회 정기노회에서 김오룡 노회장의 집례로 세례를 받았다. 이번 세례식은 부산 거성교회에서 진행됐으며, 복음의 역사가 150여 년 만에 완전한 순환을 이루는 뜻깊은 자리로 기록됐다.

150여 년 전 스코틀랜드를 떠나 만주로 향했던 존 로스는 한국 기독교의 초석을 세운 인물로 평가된다. 그는 세계 최초로 한글 신약성경을 번역해 한국인들이 모국어로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수 있도록 했으며, 띄어쓰기를 체계화하여 한글의 발전과 보급에도 큰 영향을 미쳤다. 또한 서상륜 등 초기 한국인 신자들에게 세례를 베풀며 한국 교회 역사학의 새로운 장을 열었다.

유럽

비록 존 로스 자신은 조선의 쇄국정책으로 한국 땅에 직접 들어오지 못했으나, 그의 사역은 한국 기독교의 뿌리가 되었고, 그의 헌신은 훗날 한국이 세계 기독교의 중심지 중 하나로 성장하는 밑거름이 되었다. 마치 모세가 약속의 땅에는 들어가지 못했지만 그의 헌신으로 이스라엘 백성이 그 땅에 들어간 것처럼, 존 로스의 사역도 그런 의미를 지닌다.

트렌딩 성평등가족부 손현보 다니엘기도회 정기 ○기독교 ○일반 미 구독신 |로그
 총회 큰택에서, 모두 동시에 들면서 쓰인 존 로스의 석회 주교를 이 판의 주교로 영수영한
 기사입니다. 북한통일
 로 한자리에 모였다. 그들은 복음을 전한 조상의 땅을 찾아와, 이번에는 복음을 받는 이
 로서 세례의 은혜를 나누었다. 이는 세계 선교 역사에서도 보기 드문 반전의 순간이었
 다.

경제

사회

경제

금융

기업

천체

부동

교단

연합

교단

기독교



NGO김오룡 노회장이 집례를 진행하고 있다. ©대한예수교장로회 부산남노회 제공

김오룡 노회장은 "이번 세례는 단순한 의식이 아니라, 150여 년 전 존 로스를 감동시켜
 복음을 전하게 하신 성령께서 지금도 민족과 세대를 넘어 역사하고 계시다는 증거"라며
 "그때 시작된 은혜의 순환이 오늘 완성되었다"고 전했다.

신학교

아시아·호주

학회

미주·중남미

유럽

중동·아프리카

재외동포

트렌딩 성평등가족부 손현보 다니엘기도회 정기 ○기독교 ○일반 미 구독신 | 로그
 총회 낙태 교판 판 주 정 인

기자
경제
경제
금융
기업
천체
부동



스코틀랜드 선교사 존 로스의 5대손인 알렉산더 로스(Alexander Ross)와 로스 그림슨(Ross Grimson)이 지난 14일 교단·단체 연합예수교장로회(통합) 부산남노회 정기노회에서 김오룡 노회장의 집례로 세례를 받고 있다. ©대한예수교장로회 부산남노회 제공

연합기구

선교연합기구

세례를 받은 알렉산더 로스와 로스 그림슨은 "이번 방문을 통해 하나님의 역사와 임재를 세대를 잇는 흐름 속에서 체험했다"며 감격을 전했다. 두 사람은 앞으로 에딘버러뉴톤교회(존로스기념) 교인으로 등록될 예정이다. 이번 세례는 로스 가문의 여러 세대가 처음으로 한국 땅에 함께 모여 신앙의 뿌리를 되새긴 역사적인 순간이었다.

목회신학 국제
 로스 가문은 부산남노회에 스코틀랜드의 전통 선물인 '퀘이크(Quaich)'와 한·영 양국 국기가 함께 새겨진 배지를 증정했다. 이 선물은 평화와 우정, 신뢰와 환대를 상징한다.

신학교

아시아·호주

학회

미주·중남미

유럽

중동·아프리카

재외동포

트렌딩 성평등가족부 손현보 다니엘기도회 정기 ○기독교 ○일반 미 구독신청 | 로그인



존 로스의 직계 후손들과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대한예수교장로회 부산남노회 제공

한편, 부산남노회는 존 로스 선교사의 업적을 기리고 복음의 유산을 이어가기 위해 지난 11일부터 20일까지 제1회 '존 로스 포럼'을 개최하고 있다. 이번 포럼에는 에딘버러대학교 마이클 노스코트 교수, 뉴욕메디슨가장로교회 아론 잔클로스 목사, 에딘버러뉴톤교회 박준수 목사, 그리고 존 로스의 4대손인 마가렛 로스 변호사가 강사로 참여해 'K-문화와 세계의 소망'을 주제로 강연과 설교를 진행한다.

마가렛 로스는 "부산에 와보니 한국의 높은 문화수준과 정서에 깊이 감명받았다. 그 뿌리에는 존 로스의 한글성경 번역과 기독교 신앙이 있다"며 "로스 가문은 K-문화가 세계의 소망이 되도록 민간대사 역할을 지속할 것"이라고 소감을 밝혔다.

존 로스의 4대 후손인 호주에서 온 존 로스는 "아제는 존 로스에 대한 체계적인 학문적 연구가 이뤄지길 바란다"고 전했다.

앞서 올해 4월 2일, 부산남노회는 스코틀랜드 로시안앤보더스노회와 자매결연을 맺었으며, 에딘버러뉴톤교회(존로스기념)의 재헌당식과 탐침목사 취임식, 노회 준회원 가입식이 함께 거행됐다. 스코틀랜드교회 총회장 쇼 제이 패터슨(Rt Rev Dr Shaw J. Paterson)은 부산남노회 임원단을 총회본부로 초청해 감사의 뜻을 전하며, 스코틀랜드 교회의 재건을 위한 한국 교회의 지원에 깊은 감사를 표했다.

트렌딩	성평등가족부	손현보	다니엘기도회	정기	○기독교	○일반	미	구독신	로그
총회	박태				교환	판	주	청	인
기자					북한·통일				
경제	김포시 한강신도시 교회 임대	군포시 작은 도서관이 있는 큰교회 매매			국방·외교				
경제일반									
				사회					
				사회일반					
									<크리스천 생활정보 마당>

목회신학

목회

신학교

학회

자세히 알아보기

신약성경

성경

개신교 역사 자료

기독교 역사 자료

신앙 훈련 프로그램

기독교 기관 탐방

조나단 에드워즈의 선교신학

중동·아프리카

속보 '1인 시위' 이재훈 목사 "약물

재외동포

많이 본 뉴스

"모든 민족과 열방을 위한 하나님의 구원 계획"

트렌딩
총회
기자의눈

성평등가족부
낙태

손현보

다니엘기도회

정기

○기독교
교판

○일반
판

미주

구독신 | 로그



“성경 가치와 신앙 자유 위해 연합” 대광기총 창립

경제

경제일반

북한·통일

국방·외교

사회



“유튜브 ‘관중’, 사랑에 목마른 현대인의 자화상”

진체포계

부동산·생활경제

인물

교육·학술·종교

사건·사고



회개하지 않아 하나님께 큰 벌을 받은 것 같습니다

북·외교

환경·날씨

식품·의료



“예수님이 하신 세 가지 무서운 말씀: 진짜 믿음이 있는가를 시험하라”

연합기구

교단

기독교기관

선교

선교연합기구

선교회

선교사



NGO

목회신학

목회

신학교

학회



유업

오피니언

중동·아프리카

끝까지 충성하라

신성욱

재외동포



회개하지 않아 하나님께 큰 벌을 받은 것 같습니다

트렌딩
총회
기자의눈

성평등가족부
낙태

손현보

다니엘기도회

정기

○기독교
교판

○일반
판

미주

구독신청 | 로그인



북한·통일

국방·외교

불탄 나무, 트럼프 의자

청쟁구

경제일반

사회

사회일반



금융·증권

에큐메니칼 성경관이 선교에 미치는 영향(3)

한승우

부동산·생활경제

인물

교회·칼럼·종교

사건·사고



분쟁·이권

1980년 8월 '전두환 위한 기도회'는 연례 국가조찬기도회와 무관

김철영

교단·단체

한겨레

식품·의료
선교



연말기공

[자녀교육 시리즈2] 스스로 공부하는 자녀로 키우는 부모의 지혜

이훈구

기독교기관

선교연말기공

선교회

선교사



단체



신학교

CGN, 서부경남 미자립 북한인권 단체 '싱크', 교회 위한 무료 영화 ... 체코서 청년 국...



국제

국제기구

아시아·호주

미주·중남미

유럽

중동·아프리카

재외동포

CCC 청소년 사역팀, 내 사마리아인의지갑, 허
년 1월 '2026 SHINE 리케인 피해 입은 자...
비...

- 트렌딩 **성평등가족부** **손현보** **다니엘기도회** **정기**
- 총화** **규속태**
- 교회일반
- 교단/단체
- 선교
- 목회·신학
- 국제
- 경제포기



故 찰리 커크 멘토 목사, 다민족 기도회서 “부흥은 기도의 토양 위에서”

신앙의 자유를 찾아 메이플라워호를 타고 코네티컷 플라이머스 항에 도착한 지 약 100년이 지나지 않아, 초기 정착자들은 종교에 참치 무관심해졌다. 성직자들조차 여..

교회 안 다니는 미국인 4명 중 3명은 과거 다닌 경험

매주 ‘넘버즈(numbers)’라는 이름으로 교회 관련 주요 통계자료를 소개하고 있는 목회데이터연구소(목데연)가 미국에서 약 10년 전 있었던 라이브웨이리서치의 ‘교..

- 부동산·생활경제
- 교단·단체
- 연합기구
- 교단
- 기독교기관
- NGO
- 목회신학
- 목회
- 신학교
- 학회



교회 성장의 기본 골격, 이것이 본질이다

포스트 팬데믹 시대를 맞은 많은 교회가 현장 예배 회복과 공동체성 강화를 최우선 과제로 삼고 있다. 그러나 성도들의 신앙 수준 약화와 20대 청년층의 신앙 이탈이 ..

더펠로우십 코리아, ‘리빌드 이스라엘’ 캠페인 전개

국제구호재단 더펠로우십 코리아(운영대표 김영미)가 전쟁과 테러 심각한 피해를 입은 이스라엘 공동체의 회복을 위해 ‘리빌드 이스라엘(Rebuild Israel)’ 캠페인을 ..



‘무릎으로 승부하는 21일의 기도’ 2025 다니엘기도회 시작

2025 다니엘기도회가 11월 1일, 국내 16,593개 교회와 해외 765개 교회, 그리고 44개 국에서

제8영도교회, 고신대에 발전기금 500만 원 전달

제8영도교회(담임목사 문지환)는 최근 종교개혁기념주일을 맞아 고신대학교(총장 이정기)

[트렌딩](#)
[성평등가족부](#)
[손현보](#)
[다니엘기도회](#)
[정기](#)
[○기독교판](#)
[○일반판](#)
[미주](#)
[구독신청](#)
[로그인](#)

[총회](#)
[기자의눈](#)
[낙태](#)
[경제](#)
[경제일반](#)
[금융·증권](#)



소망교도소, 개척 15주년 맞아 '제1회 아가페 국제교정학술대회' 개최

한국선교 140주년 기념 '다음세대 불업 페스타' 열린다

재단법인 아가페(이사장 김삼환 명성교회 원로목사)가 설립한 소망교도소가 개척 15주년을 맞아 오는 11월 5일부터 7일까지 '세상의 빛: 신앙 기반 회복적 교정(Light of..

개신교 한국선교 140주년을 기념하는 '다음세대 불업(Boom Up) 페스타'가 오는 11월 7~8일 서울 꽃재교회(담임 김성복 목사)에서 열린다. 기독교대한감리회(감독교회장 김..

[교단·단체](#)
[그룹 브랜드](#)
[연합기구](#)

宣教新聞

CHTV

Ccaot

씨플레이스

BIBLE PORTAL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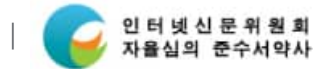
크리스천복스연합기구

기독교일보

© 2025 christiandaily.co.kr All rights reserved.

서울특별시 성북구 안암로 53 크로스빌딩 | 등록번호 : 서울 아02205 | 등록일자 : 2012.07.18 | 사업자번호: 204-81-20946
 발행인(대표자): 김규진 | 편집인 : 김진영 | 청소년보호책임자 : 장지동 | 고충처리인: 장지동 | TEL 02-739-8119 | FAX 02-6008-8119
 구독문의 02-6085-8166 | 광고문의 010-2700-3297

[회사소개](#) | [광고안내](#) | [구독신청](#) | [기사제보](#) | [개인정보취급방침](#) | [청소년보호정책](#) | [고충처리](#) | [윤리강령](#)



기독교일보의 모든 콘텐츠(기사)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으며,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을 금합니다.



[Privacy and cookie settings](#)

Managed by Google. Complies with IAB TCF. CMP ID: 300

중동·아프리카

재외동포



HOME > 뉴스

한국 교회, 스코틀랜드 선교사 존 로스의 후손들에게 세례를 베푼다

보도팀 | 승인 2025.10.16 18:12 | 댓글 0



150년 전의 소명, 한 세대 후손들에게 완성된 기적



스코틀랜드 선교사 존 로스 목사의 5대손인 알렉산더 로스와 로스 그림슨이 지난 14일 부산남도회에서 세례를 받았다. 이 사건은 세계 기독교 역사에서도 유례를 찾기 어려운 기적의 순간으로 평가받고 있다.

존 로스는 1870년대 만주를 거쳐 한국 기독교 역사에 거대한 족적을 남긴 인물이다. 한글로 번역된 최초의 신약성경을 완성했을 뿐 아니라, 한글에 띄어쓰기를 정립해 세종대왕의 한글을 세계에 알렸다. 비록 조선의 쇄국정책으로 한국 땅을 밟지 못했지만, 그의 한글 성경 번역은 한국을 세계 기독교의 중심지로 만드는 데 결정적 역할을 했다.

이번 세례식의 의미는 단순한 종교 의식을 넘어선다. 스코틀랜드에서 한국으로 흘러온 복음이 150년 후 한국에서 그 선교사의 후손들에게 다시 돌아온 것이기 때문이다. 과거 복음을 받았던 나라가 이제는 복음을 전하는 나라로, 복음을 전했던 선교사의 후손들에게 세례를 베푸는 나라로 변화한 것을 보여주는 증거다.

핫이슈

- 1 [예술과 목회] "내게 돌아올 몫을 주소서"
- 2 [전문가 칼럼] "기대"와 "현실"의 깊은 계곡
- 3 [다음세대 코칭] AI는 성령을 흉내 내지 못한...
- 4 오록선교회, 창립 50주년 맞아 회년의 감사...
- 5 [텔레이오스] 도시의 가장 낮은 곳에서: 손수...
- 6 장로교 정체성 훼손 논란, 제110회 총회 ...
- 7 목회자 청빙, 대전환기 한국교회의 과제
- 8 [영화와 복음] 영화 <플란다스의 개> - '호모 ...
- 9 무종교 암흑시대에 종교교육이란?
- 10 [특별 기고] 장로교회 총회의 체제에 대한 하...

주요 뉴스

- 30년의 섬김, '감사 또 감사'... 신동설 목사의 마지막 연가
- [논설] "교회는 쉬지않고 개혁되어야 한다"
- [가고 싶은 교회] 아홉 번째 마당 '치우치지 않는 교회'
- [특별 기고] 장로교회 총회의 체제에 대한 하나의 생각



세대를 잇는 하나님의 역사, 한-스코틀랜드 유대 심화

현존하는 존 로스의 직계후손 대부분이 스코틀랜드, 잉글랜드, 호주에서 부산남노회의 초청을 받아 조상이 복음을 뿌린 땅을 방문했다. 이는 한 가족이 처음으로 여러 세대가 함께 한국 땅에 모인 역사적인 사건이다.

부산남노회는 지난 4월 스코틀랜드교회 로시안앤보더스노회와 자매결연을 체결했고, 1747년에 설립된 에딘버러뉴튼교회의 재헌당식을 거행했다. 또한 존 로스포럼을 개최해 'K-문화와 세계의 소망'을 주제로 국제학자들과 한국 기독교의 역사적 가치를 조명하고 있다.

세례를 받은 알렉산더 로스는 "하나님의 임재와 역사 속에서 세대를 잇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체험했다"고 고백했다. 로스 가문의 변호사 마가렛 로스는 "K-문화의 뿌리에는 기독교와 존 로스의 한글성경 번역이 있다"며 세계의 소망으로 한국 문화가 확대될 수 있도록 민간대사 역할을 할 것을 밝혔다. 부산남노회는 로스 가문과 함께 스코틀랜드에서 '존 로스 유치원'과 '박물관' 건립을 추진하는 등 양국 기독교 공동의 유산을 미래 세대에 전하려는 노력을 이어가고 있다.

저작권자 © 가스펠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가스펠투데이의 뉴스를 받아보세요!



댓글 0

댓글입력 권한이 없습니다.

✓ 최신순 추천순

• [뉴스 비평] 언론은 사법개혁을 어떻게 보고 있는가?

• 황석웅 목사, 장애인 사역 30년 만에 목사안수 받고 영혼 구원의 닳을 올리다

• 오륙선교회, 창립 50주년 맞아 희년의 감사와 100년 선교 비전 선포

명칭 : 가스펠투데이 제호 : 가스펠투데이 등록번호 : 서울 아 04929 등록일 : 2018-1-11 발행일 : 2018-2-5 발행인 : 채영남 편집인 : 박진석

가스펠투데이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Copyright © 2025 가스펠투데이. All rights reserved. mail to gospeltoday@daum.net

POWERED BY **NE**



뉴스와 보도 생각 나누기 연못골 이야기(기획) 치유 화해 생명 Voice Culture

검색

인물/사건/소개 교회/노회/총회 교계/기관/신학교 정치/사회/문화 국제/분쟁/구호 학생/여성/노인 타종교 정정보도

최종편집 : 2025.11.5 수 08:34

생각 나누기
지금 찾아갑니다.

존로스 후손, 부산서 세례받아

예장뉴스 보도부 | ds2sgt@daum.net

승인 2025.10.16 13:07:20



많이 본 기사

- 1 "인성경사 통과 안 되면 목사 안수 못받는
- 2 김동호 목사 이미 은퇴한 목사 아닌 가?
- 3 이찬수 목사, 정말 아픈가?
- 4 대림절(Advent) 교회력의 의미
- 5 총회 산하 7개 신학대학교 교수 시국성명서
- 6 이재명 후보의 종교는 기독교
- 7 장로교 당회원, 당회장의 역할(1)
- 8 이재철 목사 강연내용 일파만파
- 9 이정훈 교수는 누구인가?
- 10 장신대 김철홍 교수 글에 대한 학생들 입장

부산남노회와 스코틀랜드와의 선교



지난 2025년 4월 2일에 부산남노회는 스코틀랜드 로시안앤보더스노회와 자매결연을 체결하였고, 양 노회 임원과 존 로스의 직계후손들이 함께 참여한 가운데 1747년에 설립된 에딘버러뉴턴교회(존로스 기념)의 재현당식, 담임목사 취임식, 로시안앤보더스노회 준회원 가입식이 거행한 바 있다. 이를 계기로 당시 스코틀랜드교회 파터슨(Rt Rev Dr Shaw J. Paterson) 총회장은 당시 방문한 부산남노회 임원들을 총회본부로 초청해 환영하며 향후 교류를 희망하며 약속한 첫 열매가 이뤄진다.

그 계기는 부산남노회 파송으로 현지 사역중 뉴턴교회 담임목사가 된 박준수선교사는 지역 스코틀랜드 주민을 중심으로 문을 달았던 교회를 개방후 부임한 첫 목회자로 지역선교에 힘쓰는 한편 존로스기념 교회로의 재현당 의미를 살려 인근 공동묘지에 방치된 존 로스의 묘비를 교회인근으로 이장하기를 원하는 직계 가족들의 소망을 담아 진행중이다. 이외에도 지역의 다음 세대 교육을 위해 존로스 유치원과 박물관 건립 등도 추진할 계획으로 있다.

그런 가운데 지난 10월 11일부터 부산남노회는 존 낙스와 존 로스로 이어지는 장로교 신앙과 역사의 더 긴밀한 협력을 위하여 지난 봄 초청에 대한 답례형식으로 존로스에 대한 노회사업의 고취와 장로교 본산지 스코틀랜드교회와 한국 교회의 복음적 유대를 위한 두 번째 걸음에 나선다. 이번 가을 노회기간에 거성교회에서 존로스 5대손 스코틀랜드 선교사의 5대손인 알렉산더 로스(Alexander Ross)와 로스 그림슨(Ross Grimson)이 김오룡 노회장의 집례로 세례를 받았다(이들에 대한 문답은 존로스교회에서 박준수목사가 한 바 있다)



박준수목사를 통한 존로스 선교에 대한 재조명

존 로스(Rev. John Ross, 1842-1915)는 150여 년 전, 스코틀랜드를 떠나 만주로 향했고, 그곳에서 최초의 한국인 신자들을 만났다. 그는 세계 최초의 한글 신약성경을 번역하여 한국인들이 자국의 언어로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수 있게 했다. 이를 통하여 한글을 보편화 시키고, 한국 최초의 교회를 세운 서상륜 등에게 세례를 베풀기도 한다. 모세가 비록 가나안 땅에는 들어가지 못한 것처럼 그도 원하던 조선에서 선교를 뜻을 이루지 못했지만 그가 번역한 성경과 첫 세례자들은 한국교회의 첫 열매가 된 것이다.

이제 한 세기가 넘는 시간이 흐른 후, 그 복음의 축복이 완전한 순환을 이루었다는 평이다. 스코틀랜드, 잉글랜드, 호주에 흩어져 있는 현존하는 거의 모든 존 로스 선교사의 직계후손(Margaret Ross, Marion Dunkin, Rosemary Ross Stevenson, Andrew Stevenson, Heather Stevenson, Allan Grimson, Natasha Grimson, Ross Grimson, John Ross, John Ross Jr., Alexander Ross, Helen Ross)들이 이번에 부산남노회 초청으로 복음을 전한 조상의 땅을 다시 찾아와 5대손이 상징적으로 세례받게 된 것이다.

이런 역사적 사실을 환기하면서 김오룡 노회장은 “이번 세례는 단순한 의식이 아닙니다. 150여 년 전 존 로스를 감동시켜 복음을 전하게 하신 바로 그 성령께서 오늘도 민족과 세대를 넘어 역사하시며, 그때 시작된 은혜의 순환을 완성하신다는 증거입니다.”라고 말하였다. 이를 위하여 노회는 물론 관심있는 지역교회들이 기도와 물질로 이들을 환영하고 접대하는 게 기쁘게 동참한 것으로 알려졌다.



부산남노회의 수고와 열매

부산남노회는 이 행사를 위하여 산하교회와 코이노니아선교회(이사장 김항재) 등 유관기관들과 협력하여 제1회 존로스포럼을 10월 11일(토) 20일(월)까지 개최하며 강사로는 에딘버러대학교 마이클 노스 코트 교수(Michael Northcott), 뉴욕메디슨가장로교회 담임목사인 아론 잔클로스 박사(Aaron Janklow), 에딘버러뉴턴교회 존로스기념 담임목사인 박준수 박사, 존 로스 4대손인 마가렛 로스 변호사가 'K-문화와 세계의 소망'이란 주제로 강연과 설교를 한다.

이에 대하여 후손 마가렛 로스는 “영국을 비롯하여 전 세계가 K-문화에 열광을 하는데 부산에 직접와서 보니 한국인들의 높은 문화 수준에 깊은 감명을 받았으며 그 뿌리에는 기독교와 존 로스의 한글성경 번역이 있다”라고 말하며 “로스 가문은 K-문화가 세계의 소망으로 더욱 확대될 수 있도록 민간대사 역할을 지속하고자 한다”고 하였다. 이번 행사를 공동주최하며 진행하는 박순수목사도 부산남노회와 로시안앤버더스 노회만의 일이 아닌 한국교회와 영국교회 세계교회로의 도약의 한 장이 되기를 소망한다.

제1회 John Ross Forum 2025

존로스 포럼 2025

K-문화와 세계의 소망 K-Culture and the Hope of the World

강연 및 설교 주제



마이클 노스코트 Rev. Prof. Michael Northcott
 에딘버러대학교 뉴질랜드 명예교수 Professor Emeritus, University of Edinburgh
 • 강연 Lecture | John Ross and the Global Influence of K-Culture
 존 로스와 K-문화의 세계적인 영향
 • 강연 Lecture | The Ideology of 'Net Zero'
 '넷제로(Net Zero)'의 부상
 • 설교 Sermon | Who then is this that even wind and sea obey him? (Mark 4:35-41)
 "그가 누구에게서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마가복음 4:35-41)



이론 잔클로우 Rev. Dr. Aaron Janklow
 에딘버러대학교(미국) 뉴욕매디슨가장로교회 담임목사 Senior Pastor, Madison Avenue Presbyterian Church New York
 • 강연 Lecture | The Enduring Word of God and the Steadfast Work of Ross, Ross, and the Apostle Paul
 하나님의 영원한 말씀과 녹스, 로스, 사도 바울의 흔들림 없는 사역
 • 강연 Lecture | Loving Your Neighbor
 이웃사랑
 • 설교 Sermon | From Scotland to Korea: The Grace of the Gears
 스코틀랜드에서 한국까지: 영문에서 채운신 순배



박준수 Rev. Dr. JunSoo Park
 에딘버러대학교(미국), University of Edinburgh / 에딘버러뉴준교회 존로스기념 담임목사 Minister, Newton Presbyterian Church John Ross Memorial Edinburgh
 • 강연 Lecture | 재종대말과 존 로스의 한글 영세 및 대중화에 대한 서거스틴 신학적 성찰
 An Augustinian Theological Reflection on King Sejong and John Ross: The Invention and Popularization of Hangeul
 • 강연 Lecture | 스코틀랜드 장로교는 어떻게 세계 기독교에 영향을 미쳤는가?
 How Did Scottish Presbyterianism Shape Global Christianity?
 • 설교 Sermon | 다시 일어나는 교회, 회복케 하시는 하나님 (이사야 30:18)
 The Church That Rises Again, the God Who Restores (1 Samuel 30:1)



마가렛 로스 Margaret Ross
 존 로스 직계 4대손, 변호사, A fourth-generation direct descendant of John Ross & Lawyer
 • 강연 Lecture | From Ross's Seed to Today's Harvest and Tomorrow's Calling
 로스의 씨앗에서 오늘날의 열매와 내일의 부르심으로



존로스 선교사

| 일시 Date and time
 2025.10.11-20

| 장소 Place
 부산남노회 산하 교회 및 유관기관

| 주관 Organized by
 대한예수교장로회 부산남노회
 Busan Nam Presbytery

| 협력 In cooperation with
 존로스 직계후손 가문
 The Direct Descendant Family of John Ross

[관련기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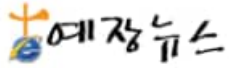
존로스(John Ross) 후손들 한국 방문 예정

이 기사에 대한 댓글 이야기 (0)

자동등록방지용 코드를 입력하세요! **5646**

- 200자까지 쓰실 수 있습니다. (현재 0 byte / 최대 400byte)
 - 욕설등 인신공격성 글은 삭제 합니다. [운영원칙]

이 기사에 대한 댓글 이야기 (0)



명칭 : 예장뉴스 (pckgoodnews.com) | 등록번호 : 서울,아02054 | 등록일자 : 2012년 4월 3일 | 제호 : 예장뉴스 | 대표 : 이상진
발행인겸 편집인 : 유재무 | 사무소 : 서울 종로구 대학로 3길 29, 100주년 610호
발행일자 : 2012년 6월 25일 | 행정메일: ds2sgt@daum.net | 전화번호 : 02)469-4402 | 청소년보호책임자 : 박재왕
Copyright © 2011 예장뉴스. All rights reserved. mail to webmaster@pck-goodnews.com

POWERED BY NC



뉴스와 보도 생각 나누기 연못골 이야기(기획) 치유 화해 생명 Voice Culture

검색

인물/사건/소개 교회/노회/총회 교계/기관/신학교 정치/사회/문화 국제/분쟁/구호 학생/여성/노인 타종교 정정보도

최종편집: 2025.11.5 수 08:34

생각 나누기
지금 찾아갑니다.

존 로스(John Ross) 후손들 한국 방문 예정

예정뉴스 보도부 | ds2sgt@daum.net



승인 2025.10.03 23:28:34



부산남노회 기간중 초청으로

존로스선교사는 영국 스코틀랜드 에든버러의 신학교에서 수학한 후, 1872년 목사 안수를 받고 스튜어트 (M.A.Stewart)와 결혼을 하였다. 그리고 그해 가을 중국에 선교사로 파송되어 산둥과 심양에서 사역하였다. 1874년 10월에 한국과의 접촉을 위해 '고려문'에 가게 된다. 그는 한국인들에게 복음을 전파하기 위해서는 한국의 역사와 문화를 이해해야 하며, 한글로 쓰인 성경이 필요하다고 생각했다.

이후 로스는 이용찬을 만나 그에게 한국말을 배운다. 그리고 이용찬과 김양선은 로스 목사와 맥킨타이어 목사에게 세례를 받았다. 한국 개신교의 첫 세례인 것이다. 로스는 중국 성경을 번역하여 1882년에 조선어로 된 누가복음서와 요한복음서를 1884년 말에는, 요한복음서와 마태복음을 출판하였다. 동시에 마가복음서와 로마서, 고린도전후서가 인쇄 중이고, 갈라디아서와 에베소서 번역을 다시 교정하고 있었다.

1884년에 로스목사는 75명에게 세례를 주었고, 1885년에는 104명에게 세례를 주었으며, 그 외에도 조선인 100명에게 세례를 주었다. 로스는 저술을 많이 했는데 동양 역사에 관한 책 '中國의 廣大'('The Extent of China'), '중국의 민족'('China's People'), '중국인의 교육'('Chinese Education')이란 책을 저술했다. 그리고 10년의 産苦(산고) 끝에 1887년 최초로 중국성경을 한국어로 번역하여 신약성경 『예수성교전서』을 출판했다.



그는 성경을 한글로 번역하는 과정에서 한글 문법책과 한글 역사책을 펴내기도 했다. 그가 출판한 신약성경과 쪽 복음은, 1884. 9월 에 정식으로 조선에 들어온 알렌과 1887. 4월 5일 들어온 언더우드와 아펜젤러의 선교 사역에 지대한 공헌을 하였으며, 조선 선교에 기초석이 되었다. 존 로스는 조선인을 자기 가족보다 더 사랑했던, 순교자였다.

그는 한국어로 번역한 최초의 외국인이자 한글 띄어쓰기를 처음으로 도입한 사람으로 알려져있다. 한국인들의 도움을 받아 신약성서를 번역하여 1887년 《예수성교전서》를 간행하였다. 로스역 성경이라는 이름은 1882년 《예수성교 누가복음전서》와 《예수성교 요한복음전서》, 1883년 《예수성교전서 누가복음 대자행적》과 《예수성교전서 요한복음》, 1884년 《예수성교전서 마태복음》과 《예수성교전서 말코복음》, 1885년 《예수성교전서 요한복음 어비쇼서신》, 1887년 《예수성교전서》 총 8권의 한글 성경을 일컫는다.

글래스고 대학교와 에든버러의 신학교에서 수학을 한 뒤, 누가 동아시아의 그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할 것인가 라는 문제의식을 가진다. 이후 스코틀랜드 연합장로교회 해외 선교부의 총무인 맥길 박사

많이 본 기사

- 1 "인성검사 통과 안 되면 목사 안수 못받는
- 2 김동호 목사 이미 은퇴한 목사 아닌 가?
- 3 이찬수 목사, 정말 아픈가?
- 4 대림절(Advent) 교회력의 의미
- 5 총회 산하 7개 신학대학교 교수 시국성명서
- 6 이재명 후보의 종교는 기독교
- 7 장로교 당회원, 당회장의 역할(1)
- 8 이재철 목사 강연내용 일파만파
- 9 이정훈 교수는 누구인가?
- 10 장신대 김철홍 교수 글에 대한 학생들 입장

를 만나 그의 도움으로 4년째 되는 해인 1872년 스코틀랜드 연합장로교회 해외선교부의 중국 선교사로 당시 만주라고 불리던 중국의 동북부로 파송되었다.

1872년 2월 27일 스코틀랜드 장로회 인버네스 노회에서 목사 안수를 받고 스트류어트(Strapp McFadyen, ~1930)와 결혼을 한다. 로스 신혼부부는 상해서 사역을 하다가 선양으로 사역지를 옮겨 1889년 동관문 교회를 설립하였다. 1892년 그는 한국에서 온 제임스 게일을 만났고 1910년 스코틀랜드로 귀향한 후에도 스코틀랜드-중국 협회를 돕는 일을 계속 하였다.



존 로스 기념교회(1747)를 재헌당

그로부터 278년이 흐른 2025년 4월 장로교의 발상지 스코틀랜드 에딘버러에 있는 존로스 선교사 기념 교회인 뉴턴교회가 한 때 문을 닫았다가 부산남노회 동래중앙교회와 박준수 목사를 통하여 4월에 재헌당식을 갖게 된다. 박준수목사는 부산남노회 소속 선교사로 이 교회 담임으로 영국 스코틀랜드교회 로 시안앤보더스노회(노회장 로나 소우더 목사)와 대한예수교장로회(통합) 부산남노회(노회장 김오룡 목사)와 공동 집례를 하게 된다.

이 행사를 위하여 부산남노회 김오룡 노회장과 황형찬목사(세계선교부장)등이 현지에 직접 참석한 바 있다. 이들은 박준수목사가 졸업한 에딘버러대학교 신학부에 장학금을 전달하기도 하였다. 그리고 오는 10월 11일(토)부터 부산남노회에 존로스 110주년을 맞이하여 그 후손들을 초청하여 제 1회 존로스 포럼을 여는 데 10여명의 후손들은 영국만이 아니라 미국과 호주등에 사는 직계 후손 10여명들이 참석할 예정으로 있다고 한다.

부산남노회가 존로스 후손들을 초청

특히 이번 일정중에는 박준수목사가 사역하는 영국내 후손들중에는 그간 교회를 나가지 않은 이들중 조상인 존로스기념교회당의 재헌당으로 인하여 후손들중 회심이 일게 되고 뭉치게 될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하나님께서 몸으로 주고 사신 교회라는 신학적 의미가 말이 아닌 역사로 증명이 될 것으로 보인다. 사람의 힘으로는 도저히 감당할 수도 상상할 수 없는 일들이 일어나는 것이다.

이 역사의 시작은 바로 존로스기념교회의 재헌당이 있는 데 문을 닫은 교회라도 오랜 역사와 전통을 갖은 곳을 개방한다고 하여도 선뜻 외국인에게 말기는 일이 쉽지 않았을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마침 박준수목사가 에딘버러대학에서 공부하고 목회도 한 것이 선정 평가에 큰 자산이 되었지만 이미 런던에서 URG 교단 2개의 영국인 교회를 섬기는 경험을 한 것이 큰 영향을 준 것으로 보인다.

또 에딘버러대학에서 공부하며 만난 동문들과 그가 한 때 부목사로 속했던 노회서 존로스교회 재건을 위한 사역에 그를 추천하고 본국의 노회가 도와 이 역사를 이루게 된 것이다. 이에 대하여 여러 말들이 있으나 최근 한류가 세계에 나가는 판에 우리자원이 영국을 거쳐 유럽으로도 갈 수 있다는 가능성도 봐야 한다. 한편 지난 봄 존로스기념교회 오프닝에 부산남노회가 전폭적으로 지원한 것에 대한 감사 답례와 존로스 탄생 110주년을 맞아 부산남노회와 코이노니아선교회, 지역교회들의 도움으로 한국방문을 한다.

그중 박준수목사가 시무하는 에딘버러뉴턴교회 존로스기념에서 문답을 하고 부산에 와서 세례를 받을 직계 5대손 2명이 동행한다. 이들은 이번 10월12일 주일에 존로스기념교회가 집례하는 지역 교인들 세례식에 로스의 4대손 마가렛 로스(에딘버러 변호사)와 그녀의 어머니 등도 오는 데 이들은 매주는 아니지만 교회에 가운을 대표해 교회에 오며 법적 자문도 해주고 있다고 한다.



부산남노회

존 로스 직계 5대손 세례식

The 91st Autumn Meeting of the Busan South Presbytery of PCK & Baptism of the Direct Descendants of John Ross on 14 October

일 시 Date and time	장소 Place
2025.10.14	거성교회

세례식 Baptism



집례: 김오룡 노회장
Moderator: Rev. Oryong Kim



Ross Crimson



Alexander Ross

| 주관 Organized by




대한예수교장로회 부산남노회
Busan Nam Presbytery

| 협력 In cooperation with

존 로스 직계후손 가문
The Direct Descendant Family of John Ross
(사) 코이노니아 선교회
Koinonia Mission Association



존 로스 선교사



1747 · Newton Presbyterian Church · 2025 · John Ross Memorial

HARVEST SERVICE


BAPTISM

of

ARIANA, ALLIE, ROBBIE

SUNDAY | OCTOBER 5 | 11 AM

NEWTON PRESBYTERIAN CHURCH
 JOHN ROSS MEMORIAL
 Newton Church Road, Danderhall, EH22 1SR
 Minister: Rev Dr JunSoo Park BTh MDiv PhD
www.edinburghnewton.com



[관련기사]

영국 존로스 기념교회 재현당

이 기사에 대한 댓글 이야기 (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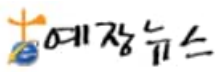
자동등록방지용 코드를 입력하세요!

- 200자까지 쓰실 수 있습니다. (현재 0 byte / 최대 400byte)
 - 욕설등 인신공격성 글은 삭제 합니다. [운영원칙]

이 기사에 대한 댓글 이야기 (0)

[신문사소개](#) · [후원하기](#) · [기사제보](#) · [광고문의](#) · [불편신고](#) · [개인정보취급방침](#) · [청소년보호정책](#) · [이메일무단수집거부](#)

[RSS](#)
[HOME](#)
[BACK](#)
[TOP](#)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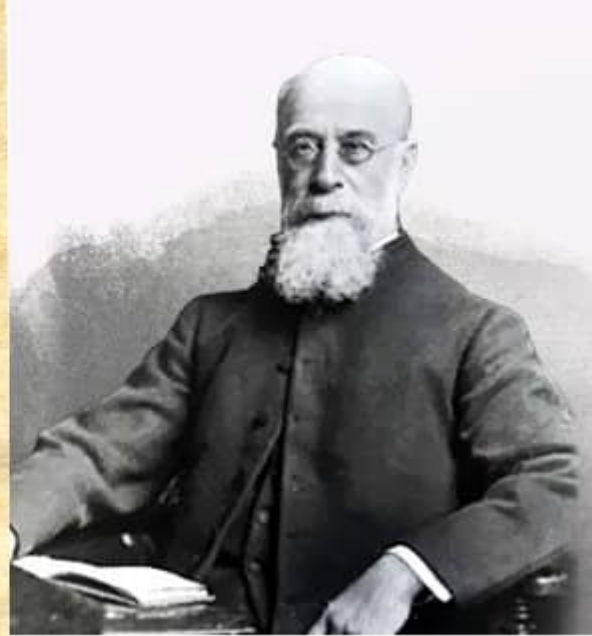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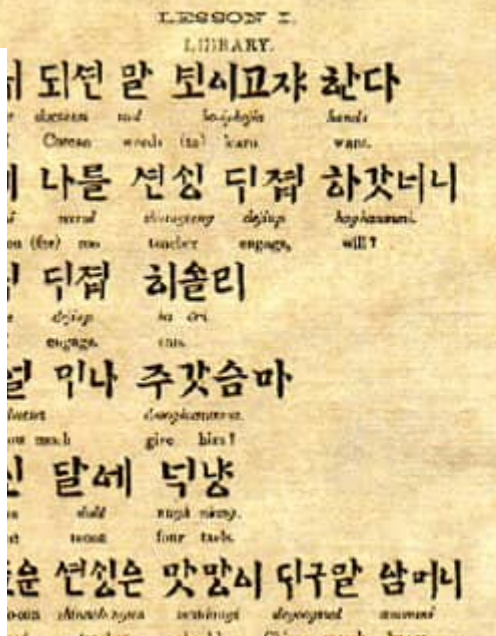


명칭 : 예장뉴스 (pckgoodnews.com) | 등록번호 : 서울,아02054 | 등록일자 : 2012년 4월 3일 | 제호 : 예장뉴스 | 대표 : 이상진
 발행인겸 편집인 : 유재무 | 사무소 : 서울 종로구 대학로 3길 29, 100주년 610호
 발행일자 : 2012년 6월 25일 | 행정메일 : ds2sgt@daum.net | 전화번호 : 02)469-4402 | 청소년보호책임자 : 박재왕
 Copyright © 2011 예장뉴스. All rights reserved. mail to webmaster@pck-goodnews.com

POWERED BY NE

한글에 관한 재밌는 사실...“띄어쓰기는 외국인 선교사가 만들었다”

동아닷컴 입력 2025-10-09 12:00



스코틀랜드 출신의 선교사 존 로스(1842~1915)는 1877년 자신과 같은 선교사나 외국인들이 한글을 배울 수 있도록 '조선어 첫걸음' (Corean Primer) 교재를 만들었는데 이때 띄어쓰기를 처음으로 적용했다. '조선어 첫걸음' (왼쪽)과 존 로스 선교사. (국립한글박물관 소식지 갈무리)

집, '아버지 가방에'와 '아버지가 방에'. 띄어쓰기 하나만으로 전혀 다른 의미가 만들어진다. 한국어에서 띄어쓰기는 단순한 문법 규칙이 아니라, 정확한 의미 전달을 위한 사회적 약속이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이 한글 띄어쓰기 체계의 출발점이 19세기 말 한국에 온 외국인 선교사였다는 점이다. 주인공은 스코틀랜드 출신 선교사 존 로스(한글 이름 나요한, 1842~1915)다.

● 한글 띄어쓰기는 언제 처음 도입됐나?

국립한글박물관 자료에 따르면, 존 로스는 19세기 말 조선을 방문해 1882년 최초의 한글 성경을 만들었다.

그는 1877년 자신과 같은 선교사나 외국인들이 한글을 배울 수 있도록 '조선어 첫걸음'(Corean Primer) 교재를 만들었는데 이때 띄어쓰기를 처음으로 적용했다.

조선시대 한글은 중국·일본과 마찬가지로 세로쓰기가 일반적이었으나, 로스가 가로쓰기를 하면서 본격적으로 띄어쓰기를 적용했다고 한다.

● 로스 “한글이 한문보다 의미 전달 정확”

서 “한글은 소리글자로 이루어져 자모만 배우면 누구나 읽고 배울 수 있는 글자”라 수성을 언급했다고 한다.

무역상인 이응찬 등의 도움을 받아 신약성서를 한글로 번역했다. 로스는 한국인들 전파하기 위해서는 선교사들이 한국의 역사와 문화를 이해해야 하며, 한글로 쓰인 하다고 생각했다.

서 한국어 성경을 완성한 로스는 “한글이 한문보다 훨씬 정확한 번역본을 만들 수 고 확신했다고 한다.

는 어떻게 정착됐나?

!버트 선교사와 한글학자 주시경 등이 1896년 최초의 한글판 신문 '독립신문' 을 발 으- - - - -쓰기를 적용해 널리 퍼지게 됐다.

1933년 조선어학회가 한글 맞춤법 통일안을 제정하며 띄어쓰기는 전국적으로 정착됐다. 초기 에는 사람마다 쓰는 방식이 달랐지만, 표준화 과정을 거쳐 오늘날 한국어 문법의 핵심 규칙으로 자리 잡았다. 지금 우리가 일상적으로 쓰는 띄어쓰기의 뿌리는, 19세기 외국인 선교사의 작은 실험에서 비롯된 셈이다.

● 오늘날 띄어쓰기는 왜 중요한가?

띄어쓰기는 단순히 글자를 구분하는 장치가 아니다. 디지털 시대에는 검색 정확도와 정보 전달 효율성에도 직결된다. 띄어쓰기 오류가 있으면 AI 번역이나 음성 인식 결과가 달라지고, 온라인

정보 검색에서도 혼선이 생길 수 있다. 전문가들은 “띄어쓰기는 한국어 표현의 정확성을 넘어, 디지털 환경에서 정보 접근성을 보장하는 핵심 요소”라고 강조한다.

박태근 기자 ptk@donga.com

© dongA.com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츠

by

산에 시진핑 '한한령' 끝 北, 4년전 “핵잠 건조” 선언 뒤 올 “정신병 같다”...‘시어머니
중문화委 “성급한 판 해 3월 선체 공개... 韓, 제작 능력 두고 서로 막말한 부부

블랙핑크 리사, 점점 더 과감해지 與, ‘한동훈 싸 죽이겠다’ 증언에 [단독]조국 “영세정당 대
는 무대 의상...완벽 몸매 “尹, 정적 제거 위해 사병놀이 취 한 말씀”...李대통령 폭소



TOP50

최신 뉴스

더미션

경제

오피니언

정치

사회

국제

엔터

여행

라이프

인류애충전소

K포럼

“ 치우침이 없는 뉴스 ” “ 치우침이 없는 뉴스 ”

시사 전체기사

벽촌 조운복 장로, '코이노니아 선교회 15년사 출판기념전' 개최

입력: 2025-10-01 21:31

예술로 전하는 하나님의 사랑!
조운복 장로, 존 로스 선교사 정신 계승 선교 활동 박차



지난 29일 부산 벽촌아트갤러리에서 열린 '코이노니아 선교회 15년사 출판기념전'에서 이근형(앞줄 왼쪽 두 번째) 소정교회 목사와 조운복(앞줄 오른쪽 세 번째) 장로가 출판 기념회를 마친 뒤 참석자들과 함께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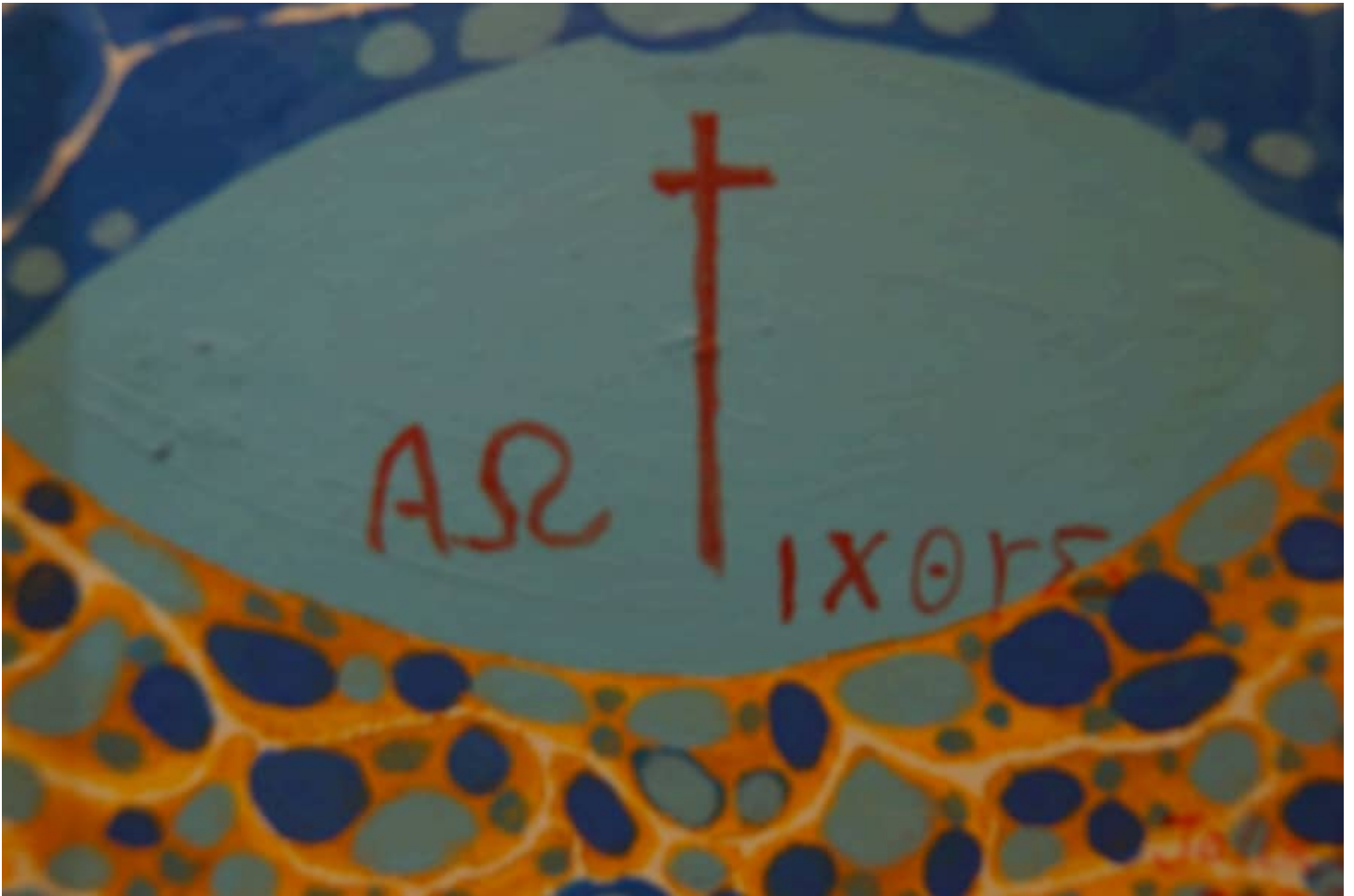
벽촌(碧村) 조운복 소정교회 장로가 지난 29일 부산 금정구 벽촌아트갤러리(관장 조운복 장로)에서 선교 샬롬 힐링전 '코이노니아 선교회 15년사 출판기념전'을 열었다. 이번 전시회에는 조 장로의 작품 60여점이 전시돼 선교와 예술이 어우러진 시간이었다.

조운복 장로는 부산대학교 의과대학 해부학, 미술학, 사범대 교수와 부산대 교수회장을 역임했다. 대한예수교장로회 통합 부산남노회 장로회장, 부산기독교장로총연합회 대표회장, 부산기독교총연합회 고문을 지내는 등 교계에서도 활발한 활동을 펼쳤다. 현재 부산대 명예교수, 벽촌아트갤러리 관장, 부산 기독교문화 역사연구회 고문 등을 맡으며 왕성하게 활동하고 있다.



조운복 소정교회 장로가 지난 29일 부산 금정구 벽촌아트갤러리에서 선교 살롱 힐링전 '코이노니아 선교회 15년사 출판기념전'을 개최했다. 이번 출판 기념전에는 조 장로의 작품 60여점을 전시했다. 조 장로가 인사말을 하고 있다.

그는 부산 서울을 비롯해 중국과 일본 등지에서 개인전 18회, 해외 초대전 30회, 국내 단체전 330회를 개최해 예술활동을 이어왔다. 또 황조근정훈장, 교회개척상, 미국 앨버트 아인슈타인상, 국제평화상(미국), 한국문화예술 대상, 제22회 올해의 참가 100인 초대전 서양화 원로작가상 등 수많은 수상 경력을 통해 예술적 역량과 사회적 기여를 인정받았다.



이날 개회예배는 이근형 소정교회 목사가 '내게 보이신 사랑'(시 31:21)을 주제로 말씀을 전했다. 이 목사는 조운복 장로의 개인전과 코이노니아 선교회 15년사 출판 기념, 존 로스 선교사 기념을 함께하게 됨에 감사를 표했다. 그는 "전시회를 통해 하늘의 평화와 힐링 치유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다윗이 고난 속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고 찬양으로 표현했듯이 조운복 장로 또한 하나님의 사랑을 그림으로 표현하며 작품 속에 따스함과 평안함, 치유를 담아냈다"고 강조했다. 이어 "그림을 통해 삶의 고단함 속에서 위로와 치유를 느낄 수 있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이근형 소정교회 목사가 지난 29일 부산 금정구 벽촌아트갤러리에서 열린 '코이노니아 선교회 15년사 출판기념전'에서 '내게 보이신 사랑'(시 31:21)을 주제로 설교하고 있다. 이 목사는 “조 장로의 그림을 통해 삶의 고단함 속에서 위로와 치유를 느낄 수 있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이 목사는 존 로스 선교사의 한글 성경 번역의 의미도 되새겼다. 존 로스 선교사는 한국 땅에 직접 오지 않았지만 한글 성경을 번역한 최초의 인물로 그의 번역을 통해 수많은 사람들이 삶의 변화와 평안을 경험했다. 이 목사는 “전시회를 통해 하나님의 사랑을 만나고 그 사랑이 다른 이에게 흘러가기를 바란다”고 강조했다.

추천기사
 “범사에 감사했더니... 성격·삶이 바뀌더라”

 A small photograph showing a group of people sitting in a room, possibly a church service or meeting. They are seated in rows, and there are some items on a table in front of them.

정권섭 소정교회 장로는 축사를 통해 조 장로의 소명 완수와 헌신에 대한 깊은 존경심을 표했다. 그는 “장로님의 타고난 소질은 바꿀 수 없다고 생각한다”며 “누에가 집을 짓는 것처럼 마지막 소명을 다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이만규 수안교회 원로목사는 조 장로와의 소중한 인연에 대한 감사와 애정을 표현했다. 이 원로목사는 “조 장로님의 사랑과 귀한 가르침에 감사하다. 앞으로도 좋은 인연을 이어가고 싶다”고 말했다.

조운복 장로는 인터뷰를 통해 존 로스 선교사 기념사업과 코이노니아 선교회의 다양한 활동을 소개했다. 그는 “스코틀랜드 뉴턴 교회를 매입해 존 로스 기념 교회로 명명하고 현장 교회를 떠나 법인을 설립했다”고 밝혔다. 또 “오는 16일 존 로스 목사의 직계 사촌들이 한국을 방문한다”며 “존 로스 선교사의 업적을 재조명하고 뉴턴 묘지에 이장하는 것을 고려 중”이라고 말했다.

코이노니아 선교회는 교회 설립 지원, 강의실 개조, 지역 아동 프로그램 지원, 우크라이나 물품 지원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다. 이 외에도 다양한 프로그램을 지원해 어려움에 처한 이웃들에게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벽촌 조운복 장로의 이번 출판기념전은 그의 삶 자체가 선교와 예술로 가득 찬 헌신의 여정임을 보여줬다. 이날 출판기념전에 참석한 관계자들은 "조 장로의 그림과 선교 활동을 통해 더 많은 이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고 위로와 희망을 얻기를 바란다"고 입을 모았다.

추천기사
 "이젠 연합 전략이다" 한목소리 낸 리더 1000명 제주 달꿨다



부산=글·사진 정홍준 객원기자 jonggyo@kmib.co.kr

GoodNews paper © 국민일보(www.kmib.co.kr), 무단전재, 수집,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클릭! 기사는 어떠셨나요?

좋아요
3

화나요
0

후속기사 원해요
0

**국민일보의 미디어선교사
 미션프렌즈가 되어주세요**

복음심은 국민일보를 군부대, 교도소에 배달하는데 정기후원으로 동역해주세요

후원하기



많이 본 기사

- 정치
- 경제
- 사회
- 국제
- 엔터
- 라이프
- TOP50

1 기준중위소득 6.51% 대폭 인상... 생계급여 월 200만원 이상 지원

2 한동훈 "이재명 계엄령 가능성"...민주당 "제정신이나"

3 조갑제 "조국, 내년 선거 별 가치 없는 존재된 듯"

4 이 대통령, 국유자산 매각 중단 긴급 지시... "험값..."

상분야별 기사 더보기



5 '강남 집' 보유 국회의원 61명...5명 중 1명 다주...

국민일보가 꼼꼼히 읽어보고 선정한

오늘의 추천기사



"범사에 감사했더니... 성격·삶이 바뀌더라"



"이젠 연합·전략이다" 한목소리 낸 리더 1000명 제주 달궜다



교인에겐 낯선... 교회 공동체 떠받치는 '연대·행정의 핵'



루터의 개혁, 전도 도구 넘어 창조주 영광 드러내다



잘못 알려진 루터, 그 오해와 진실을 말하다



사회·화해의 선교 44년 "복음은 한일 묶는 힘"... 양국간 영적 다...



목사父子 학교 속으로 들어갔다니... 아이들이 달라졌어요



"복음은 언어 뛰어넘어 역사... 1974년 한국서 배웠다"

스카이샵 NO.1 베스트 주류 세트상품 기획전

KOREAN AIR SKY SHOP

지금 구매하러 가기 →

라이브 뉴스

신앙 기반 교정, 재범률 낮추는 대안...'소망교도소' 세계 이목 8분전



김복유·월드비전, 크리스마스 콘서트 연다

11시간전



구세군 자선냄비 스마트폰으로 간편하게 기부하세요

11시간전



굿피플, 22억 규모 '사랑의 희망박스 박싱데이'

11시간전



[이상학 목사의 후보천리] 이제는 지긋지긋하다

11시간전



오피니언

보이스피싱과 중국인 총책

[한마당]



베이징에 독립운동 기념공간을

[특파원 코너]



박물관은 문턱이 아니라 품이어야 한다

[한승주 칼럼]



아픈 몸에 대해 말하기

[청사초롱]



간부의 정치학

[너섬情談]



엔터 많이 본 기사

1 서른네 살, 불꽃처럼 살다간 프로골퍼 故 '변현민'..."나를 잊지 말아요"



2 [앵글속 세상] "겹은 안 나오요... 더 빨리 달리고 싶은 마음만 있죠"



3 손흥민 1골 1도움... LAFC, 서부 준결승 진출



4 가요무대 40년 빛낸 이미자의 특별 무대



5 손흥민 LAFC 데뷔골, MLS '올해의 골' 됐다



더 미션 많이 본 기사

1 [겨자씨] 페이지 터너의 은혜



2 [가정예배 365-11월 5일] 예수님을 따르려면(2)



3 "범사에 감사했더니... 성격·삶이 바뀌더라"



4 [오늘의 QT] 주님을 의지한다는 것



5 [오늘의 설교] 내가 확실히 아는 것



TOP50
최신뉴스
더 미션

전체
뉴스
신앙생활
생각+
더 미션
경제

경제일반
증권·금융
산업·기업
부동산·건설·교통
유통·소비자
IT
과학일반
오피니언
정치

정치일반
국회정당
대통령실
외교안보
북한·한반도
사회

사회일반
사건·사고
검찰·법원
교육·입시
복지·보건
환경·노동
전국
국제

국제일반
미국
중국
일본
유럽·러시아
기타
엔터

스포츠일반
야구
축구
골프
연예일반
영화·비디오
가요·방송사
드라마·예능
여행,
라이프

문화일반
음악·공연
미술·전시
출판·문학
생활일반
자동차
의학·건강
레저·여행
인류애충전소
K포럼

더 미션
오피니언
국민ONLY
지면기사
최신뉴스
만평
포토·영상
기획

정치
정치일반
국회정당
대통령실
외교안보
북한·한반도
국제
국제일반
미국
중국
일본
유럽·러시아
기타

경제
경제일반
증권·금융
산업·기업
부동산·건설·교통
유통·소비자
IT
과학일반

사회
사회일반
사건·사고
검찰·법원
교육·입시
복지·보건
환경·노동
전국

엔터
스포츠일반
야구
축구
골프
연예일반
영화·비디오
가요·방송사
드라마·예능
e스포츠

라이프
문화일반
음악·공연
미술·전시
출판·문학
생활일반
자동차
의학·건강
레저·여행
PLAY국민
TOP50
인류애충전소
여행,

서비스
기자뉴스룸
제보하기
신문구독
국민 리프린팅
K-PLUS(초판 PDF)
컨텐츠 구입문의
RSS
K포럼



회사소개 전화번호안내 광고안내 고충처리인
개인정보취급방침 청소년보호정책(책임자:남혁상) 미디어클럽
사이트맵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공원로 101 전화번호 02-781-9114
등록번호 서울 아04191 등록(발행)일 2016년10월31일 발행인 김경호
편집인 신종수
Copyright © KUKMINILBO All rights reserved.



지면기사기사제보RSS사이트맵

© 국민일보

일반뉴스

장신 NEWS | 일반뉴스

장신NEWS

URL복사 https://www.puts.ac.kr/www/board/view_general.asp?seq=1886&skin=news&design=story&m1=1&m2=2&m3=1&bd_n

존 로스 선교사 5대손 장신대 방문, 생전 사진 기증 및 '존 로스 장학기금' 조성

작성자 : 비서실/대외협력실/조수연 작성일 : 2025.10.24 조회 : 4328

장신 NEWS

전체뉴스

일반뉴스

행사뉴스

피플뉴스

학술뉴스

동문뉴스

기부뉴스

465A9111.jpg
단체사진 (2)(6).JPG
박종순 목사님과 함께 단체사진(0).JPG
제품실(0).JPG

[첨부 #1 바로보기]



[첨부 #2 바로보기]



[첨부 #3 바로보기]



[첨부 #4 바로보기]



*이미지 미리보기(↑)에 표시된 이미지는 가로사이즈 700px로 조정된 썸네일 이미지입니다.
*원본 이미지가 필요하신 경우 [바로보기] 우측 상단의 첨부파일 링크를 클릭하여 주십시오.

2025년 10월 24일(금), 150여년 전 조선의 쇄국정책 때문에 선교사들이 내한할 수 없는 상황에서 한국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한글 성경을 번역해 한국 개신교 선교의 초석을 놓았던 존 로스(John Ross, 1842~1915) 선교사의 직계 후손들이 방문했다.

로스 선교사의 5대 손인 존 로스 주니어(John Ross Jr.), 알렉산더 로스(Alexander Ross), 그리고 헤더 스티븐슨(Heather Stevenson)과 함께 에딘버러뉴튼교회(존로스기념) 박준수 담임 목사, 코이노니아선교회 이사장인 김항재 장로(동래중앙교회 원로장로, 부산남노회)가 동행했다.

이들은 가족들이 유품으로 가지고 있던 존 로스 선교사의 생전 사진과 스코틀랜드 전통 켈트 십자가를 기증하고, 존 로스 장학기금 1,000만원을 조성하는 뜻깊은 시간을 가졌다.

이 장학기금 조성에는 존 로스 가문 외에도 김동호 목사님(에스겔선교회 대표), 소봉순 권사(주님의교회), 김항재 장로, (코이노니아선교회 이사장), 김성철 박사, 김자경 권사(기쁜소식교회), 진주복음병원(이사장 정국진), 김해교회(정의식 목사)가 함께 후원하며 동참했다.

이후, 최영근 교수(한국교회사 전공) 인솔 아래 박물관, 고서실, 도서관 등에서 1차 사료에 대한 해설과 투어가 진행되었으며, 이들은 채플에도 함께 참석했다.

*참고: 존 로스 선교사는 1872년 스코틀랜드에서 중국으로 파송돼 선교 활동을 했다. 로스 선교사는 조선의 문이 열릴 것을 믿으면서 성경번역 사업을 추진했고, 스코틀랜드성서공회의 지원을 받아 성경을 출판했다. 그는 1881년부터 1886년까지 만주 봉천 문광서원에서 한국인 번역자, 동료 선교사인 매킨타이어와 함께 번역 작업을 진행했고 1887년 우리나라 최초의 신약성경인 '예수성교전서'를 출간했다.

SEOUL, Korea – October 24, 2025 (Friday) – The direct descendants of the revered missionary John Ross (1842–1915), who laid the cornerstone for Protestant missions in Korea by pioneering the evangelization of the Korean people and translating the Hangeul Bible despite the nation's 150-year-long isolationist policy that barred missionaries from entry, paid a meaningful visit to Presbyterian University and Theological Seminary.

The delegation included John Ross Jr., Alexander Ross, and Heather Stevenson—all fifth-generation descendants of Missionary Ross. They were accompanied by Rev. Dr. Junsoo Park, Minister of Newton Presbyterian Church John Ross Memorial, and Elder Hangjae Kim, Chairman of Koinonia Mission (Elder Emeritus of Dongnae Central Church and Busan Nam Presbytery).

During their visit, the family presented several significant mementos: a photograph of Missionary Ross from his lifetime, which had been passed down through the family, and a traditional Scottish Celtic Cross. In a particularly meaningful gesture, they also established the John Ross Scholarship Fund with a donation of 10 million Korean Won.

The establishment of this fund saw generous support not only from the John Ross family but also from various contributors, including Rev. Dongho Kim (Representative of Ezekiel Mission), Deaconess Bongsoon So (Joonim's Church), Elder Hangjae

Kim (Chairman of Koinonia Mission), Dr. Sungcheol Kim, Deaconess Jagyeong Kim (Gibbeunsosik Church), Jinju Gospel Hospital (Chairman Geukjin Jeong), and Gimhae Church (Rev. Euisik Jeong).

Following the ceremony, Professor Yeonggeun Choi (specializing in Korean Church History) led the group on a guided tour, providing detailed commentary on primary historical sources in the museum, archives of rare books, and the library. The descendants also participated in a chapel service.

*Background Note on Missionary John Ross:

In 1872, John Ross was dispatched from Scotland to China for missionary work. Believing that the doors to Joseon (Korea) would eventually open, Ross dedicated himself to the monumental task of translating the Bible. Supported by the National Bible Society of Scotland, he undertook the translation project from 1881 to 1886 at the Munkwang Seowon in Fengtian, Manchuria, collaborating with Korean translators and his fellow missionary, John MacIntyre. This tireless effort culminated in the 1887 publication of Yesu Seonggyojeonseo, the very first New Testament in the Korean language.

공감 2

목록으로

개인정보처리방침 정보보호실천수칙

대외협력처 Tel: (02)450-5513,5500 Fax: (02)447-5067

(우)04965 서울시 광진구 광장로5길 25-1(광장동) 장로회신학대학교
Tel:02-450-0700 (ARS), Fax:02-452-3460 (행정실)

© Presbyterian University and Theological Seminary. All rights reserved.

존 로스 선교사 5대손, 장신대에 장학 기금 조성

존 로스 선교사 5대손, 장신대 장학 기금 조성

존 로스 선교사의 헌신과 신앙 유산 되새겨, 생전 사진과 스코틀랜드 전통 켈트 십자가 기증

최은숙 기자 ches@pckworld.com

2025년 10월 25일(토) 17:0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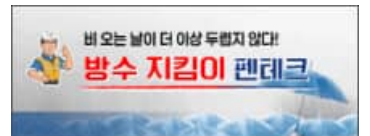
장신대 최영근 교수의 안내로 박물관, 도서관을 둘러보며 '예수성경전서' 해설과 연구 현황에 대한 설명을 들었다.



존 로스 선교사 5대손인 존 로스 주니어(John Ross Jr.), 알렉산더 로스(Alexander Ross), 헤더 스티븐슨(Heather Stevenson)은 지난 10월 24일 장로회신학대학교를 방문해, 그동안 가족들이 보관해 온 존 로스 선교사의 생전 사진과 스코틀랜드 전통 켈트 십자가를 학교에 기증했다.

카드 뉴스

에즈라 진 목사와 중국 지하교회를 위한 기도



많이 보는 기사

- 1 포항동부교회 100주년, '100년의 충성이 100...
- 2 한교총 신임 사무총장 후보에 김철훈 목사 추천
- 3 총회 유지재단, 신임이사장에 김영걸 목사 선임
- 4 소망의 50년을 향하여 비전 선포
- 5 충북노회 장안교회 화재로 교육관, 장애인 숙소 등 ...
- 6 추수의 기쁨, 도농 상생으로 함께 나누다

존 로스 선교사 5대손, 장신대에 장학 기금 조성



후손들은 한국 교회와 신학생들을 위한 '존 로스 장학기금'으로 1000만 원을 조성해 신앙적 유산을 이어가겠다는 뜻을 밝혔다



후손들은 채플 예배에 참석해 로스 선교사의 사역이 한국 교회에 남긴 신앙의 흔적을 되새겼다.

한글 성경을 번역해 한국 기독교 선교의 초석을 놓았던 존 로스 선교사의 5대 손들이 지난 10월 24일 장로회신학대학교(총장:박경수)를 방문했다. 후손들은 이날 한국교회와 신학생들을 위해 '존 로스 장학기금' 1000만 원을 조성하며 믿음의 유산을 이어가겠다는 뜻을 밝혔다.

이날 학교를 찾은 후손은 존 로스 주니어(John Ross Jr.), 알렉산더 로스(Alexander Ross), 헤더 스티븐슨(Heather Stevenson) 등 3인으로 이번 방문은 존 로스 선교사의 헌신과 신앙의 유산을 기리고, 한국 교회와의 역사적 인연을 되새기는 자리로 마련됐다. 이들은 그동안 가문에서 보관해 온 존 로스 선교사의 생전 사진과 스코틀랜드 전통 켈트 십자가를 장신대에 기증했다.

장학기금 조성에는 김동호 목사(에스겔선교회 대표), 소봉순 권사(주님의교회), 김항재 장로(코이노니아선교회 이사장), 김성철 박사, 김자경 권사(기쁜소식교회), 진주복음병원(이사장 정극진), 김해교회(정의식 목사) 등이 동참했다.

장신대는 향후 이 기금을 존 로스 선교사와 초기 한국선교를 연구하는 학생들을 지원하는 장학금으로 활용할 계획이다.

이후 일행은 최영근 교수(한국교회사 전공)의 안내로 박물관, 고서실, 도서관을 둘러보며 '예수성교전서' 해설과 연구 현황에 대한 설명을 들었다. 채플 예배에도 참석해 로스 선교사의 사역이 한국 교회에 남긴 신앙의 흔적을 되새겼다.

존 로스 선교사는 1872년 스코틀랜드에서 중국으로 파송돼 선교 활동을 시작했으며, 조선의 문이 열릴 것을 믿고 복음 전파와 성경 번역 사업을 추진했다. 그는 스코틀랜드성서공회의 지원을 받아 1881년부터 1886년까지 만주 봉천의 문광서원에서 한국인 번역자들과 동료 선교사 매킨타이어(MacIntyre)와 함께 성경 번역을 진행했고, 1887년 한국 최초의 한글 신약성경 '예수성교전서'를 출간했다.

최은숙 기자

[최은숙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

오늘의 가정에배



아카이브 지면보기



존 로스 선교사 5대손, 장신대에 장학 기금 조성

Only 2 Steps

Download

to use extension (Free)

Click "Download"

Add Privacy Guard for Chr



인기기사 TOP 5

- 1 포항동부교회 100주년, '100년의 충성이 1000년의 축복으로'
- 2 한교총 신임 사무총장 후보에 김철훈 목사 추천
- 3 총회 유지재단, 신임이사장에 김영걸 목사 선임
- 4 소망의 50년을 향하여 비전 선포
- 5 충북노회 장안교회 화재로 교육관, 장애인 숙소 등 전소

뉴스 최신기사 TOP 5

- 1 11월 둘째 주 라디오 기독교공보
- 2 함해노회 제199회 정기노회
- 3 대봉교회 임직예식
- 4 충북노회 장안교회 화재로 교육관, 장애인 숙소 등 전소
- 5 총회 5차 공과, 신앙의 일상화 목표

한국기독교공보소개 | 기사제보 | 광고안내 | 광고검색 | 지사장모집 | 대한예수교장로회총회 | 불편신고 | 개인정보보호정책 | 청소년보호정책 | 새생명 새빛 운동

	£125,000	£195,000	£
Duns		Ipswich	Honiton
	£4,200,000	£130,000	£4
Kirknewton		Dunoon	Kyle

한국기독교공보

등록번호 : 서울, 아04291 | 등록일자 : 2016년 12월 22일 | 이사장 : 정훈 | 발행인 : 이순창 | 편집인 : 이재규 | 편집국장 : 이수진
 서울특별시 종로구 김상옥로 30, 1402호(연지동, 한국기독교연합회관) 사업자번호 : 208-82-01308 청소년보호책임자 : 황해선
 편집국: 02) 708-4713~6 / 4720(fax) 총무국: 02) 708-4710~2 / 4708(fax) 광고국: 02) 708-4717~9, 708-5025/4707(fax)
 법인 : 재)대한예수교한국기독교공보사 외부필자 원고는 본보 편집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 Copyright (c) by 한국기독교공보 All rights reserved.

[Privacy and cookie settings](#)

Managed by Google. Complies with IAB TCF. CMP ID: 3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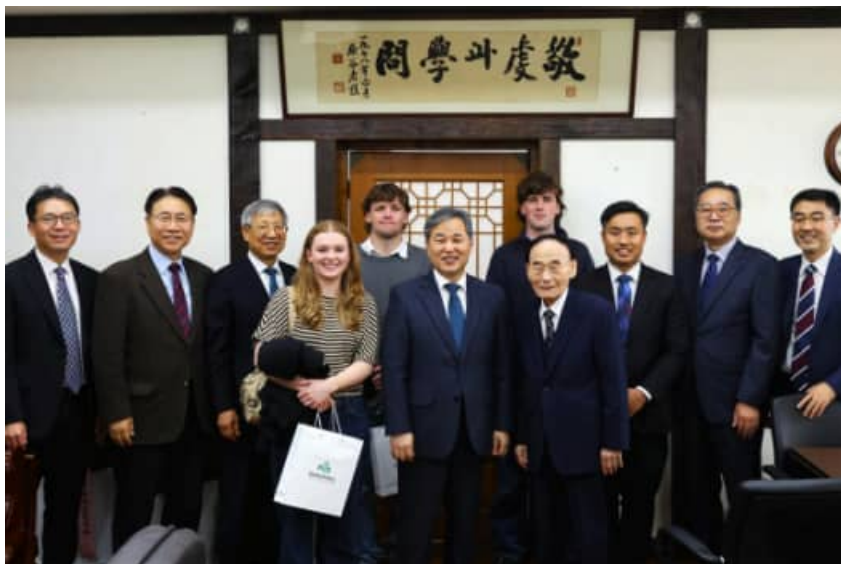
HOME > 뉴스

존 로스 선교사 후손의 장신대 방문

보도팀 | 승인 2025.10.31 12:20 | 댓글 0



물품 기증 및 '존 로스 장학기금' 조성



장로회신학대학교 제공

한국 개신교 선교의 기틀을 마련한 존 로스(John Ross, 1842~1915) 선교사의 직계 후손들이 지난 10월 24일(금) 장로회신학대학교를 방문해 물품 기증식을 가졌다.

존 로스 선교사는 약 150여년 전 조선의 쇄국정책으로 인해 선교사들이 직접 입국할 수 없었던 상황 속에서도 한국인들에게 복음을 전파하고 한글 성경 번역을 완성한 인물이다.

이날 장신대를 방문한 선교사 후손들은 로스 선교사의 5대손인 존 로스 주니어(John Ross Jr), 알렉산더 로스(Alexander Ross), 헤더 스티븐슨(Heather Stevenson)이며, 에딘버러뉴튼교회(존 로스기념) 박준수 담임 목사와 코이노니아선교회 이사장 김항재 장로(동래중앙교회 원로장로, 부산남노회)가 동행했다.

후손들은 이번 방문을 통해 가문에서 유품으로 간직해온 존 로스 선교사의 생전 사진과 스코틀랜드 전통 켈트 십자기를 장신대에 전달했다. 또한 존 로스 장학기금 1,000만원 조성에도 나섰다. 이 기금 마련에는 로스 가문뿐 아니라 김동호 목사(에스겔선교회 대표), 소봉순 권사(주님의교회), 김항재 장로(코이노니아선교회 이사장), 김성철 박사, 김자경 권사(기쁜소식교회), 진주복음병원(이사장 정극진), 김해교회(정의식 목사) 등이 후원에 힘을 보탰다.

기증식을 마친 후 방문단은 한국교회사를 전공한 최영근 교수의 안내로 박물관, 도서관, 도서관을 둘러보며 1차 사료에 관한 상세한 설명을 들었고, 학교 채플 예배에도 참여했다.

핫이슈

- [예술과 목회] "내게 돌아올 뉘를 주소서"
- [전문가 칼럼] "기대"와 "현실"의 깊은 계곡
- [다음세대 코칭] AI는 성령을 흉내 내지 못한...
- 오류선교회, 창립 50주년 맞아 회년의 감사...
- [텔레이오스] 도시의 가장 낮은 곳에서: 손수...
- 장로교 정체성 훼손 논란, 제110회기 총회 ...
- 목회자 청빙, 대 전환기 한국교회의 과제
- [영화와 복음] 영화 <플란다스의 개> - '호모 ...
- 무종교 암흑시대에 종교교육이란?
- [특별 기고] 장로교회 총회의 체제에 대한 하...

주요 뉴스

- 30년의 섬김, '감사 또 감사'... 신동설 목사의 마지막 연가
- [논설] "교회는 쉬지않고 개혁되어야 한다"
- [가고 싶은 교회] 아홉 번째 마당 '치우치지 않는 교회'
- [특별 기고] 장로교회 총회의 체제에 대한 하나의 생각

존 로스 선교사는 1872년 스코틀랜드에서 중국으로 파송되어 선교 사역을 시작했다. 언젠가 조선의 문이 열릴 것이라는 확신을 갖고 성경번역 프로젝트에 착수한 그는 스코틀랜드성서공회로부터 재정 지원을 받아 출판 작업을 진행했다. 1881년부터 1886년까지 만주 봉천 문광서원에서 한국인 번역자들 및 동료 선교사 매킨타이어와 협력해 번역을 완료했으며, 1887년에는 우리나라 최초의 신약성경 '예수성경전서'를 세상에 내놓았다.

저작권자 © 가스펠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보도팀

다른기사 보기

가스펠투데이의 뉴스를 받아보세요!



댓글 0

댓글입력 권한이 없습니다.

✓ 최신순 추천순

• [뉴스 비평] 언론은 사법개혁을 어떻게 보고 있는가?

• 황석웅 목사, 장애인 사역 30년 만에 목사안수 받고 영혼 구원의 닳을 올리다

• 오륙선교회, 창립 50주년 맞아 희년의 감사와 100년 선교 비전 선포



- 대학소개
- 대학/대학원
- 입학정보
- 학사종합안내
- 대학기구
- 한일E-CAMPUS



한일E-CAMPUS

한일E-CAMPUS	한일미디어	한일뉴스
------------	-------	------

한일뉴스

간호선교사 육성 위한 '존 로스 장학금' 700만원 기탁

글쓴이 : 부속실 등록일 : 20251028 조회수 : 295

간호선교사 육성 위한 '존 로스 장학금' 700만원 기탁

박준수 목사, 10월 28일 예배 참석 ... "최초 한글성경 번역 출판의 정신 기억하길"



한국 신약성경을 최초로 번역한 존 로스(John Ross; 1842-1915) 선교사의 정신이 깃든 장학금이 우리 대학에 전달됐다.<위 오른쪽 사진이 존 로스 선교사>

존 로스 선교사를 파송한 스코틀랜드의 에딘버러뉴톤교회 담임목사로 사역중인 박준수 목사가 10월 20일 우리 대학을 방문해 전체 재학생들과 함께 예배를 드렸다. 박목사는 이날 예배에서 축도하고, 황총장에게 존 로스 후손들을 대신하여 ‘존 로스 장학금’ 700만원과 존 로스 선교사의 유품인 사진액자를 전달했다.

이 ‘존로스 장학금’은 존 로스 선교사 서거 110주년을 기념해 조성한 것으로, 존 로스 가문과 박종순 증경총회장(한국지도력센터 이사장), 채영남 증경총회장, 홍석원 원장(밝은홍안과·동래중앙교회 장로), 김성철 박사(휴스톤 의사), 한상욱 집사(기쁜소식교회), 코이노니아선교회(이사장 김항재·회장 김주성), 드보라기도회(동래중앙교회) 등이 참여해 조성한 것이다. 이 장학금은 존 로스 후손들의 요청에 따라 간호학과 학생들을 위한 장학금으로 쓰일 예정이다.

박목사는 “존 로스 선교사는 최초로 한글 성경을 번역했고 띄어쓰기를 도입했는데 지금의 K-문화 열풍과 더불어 전 세계의 소망으로 부상하는 데 큰 기여를 했다”며 “세계 곳곳에 흩어져있던 선교사의 직계후손들을 찾아내 함께 한국으로 왔으나 일정상 한일장신대를 함께 방문하지 못해 아쉽다”고 말했다.

에딘버러뉴톤교회는 1747년 설립되었다가 출석교인이 없어 일반인에게 매각 위기에 처해 있다가 이를 안타깝게 여긴 박목사와 부산남노회 소속 교회들이 교회를 매입하고 법인을 세워 올해 4월 교회를 재건하는 데 성공했다.

존 로스 선교사는 1872년 스코틀랜드에서 중국으로 파송되었으며, 당시 조선의 문이 열릴 것을 믿으면서 성경 번역 사업을 추진했고, 스코틀랜드성서공회의 지원을 받아 성경을 출판했다. 그는 1881년부터 1886년까지 만주 봉천 문광서원에서 한국인 번역자, 동료 선교사인 매킨타이어와 함께 번역 작업을 진행했고 1887년 우리나라 최초의 신약성경인 ‘예수성경전서’를 출간했다.



△사진 왼쪽부터 간호학과 홍세화, 조은실 교수, 황세형 총장, 박준수 목사, 간호학과 김지애, 차현수, 심리상담학과 노항규 교수

문서뷰어

첨부파일 문서 형식에 맞는 뷰어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내용을 확인 하실 수 있으며, 관련 프로그램은 한일장신대학교와 무관합니다.



목록

이전글 사격부, 제106회 전국체전 단체전 ‘금메달’ 쾌거

다음글 바울교회, 대학발전기금 500만원 기탁

담당부서 : 담당자 : 연락처 :

개인정보처리방침
표절방지시스템

정보공개제도
Office365

개정주민등록법

주요사이트

학부 및 대학원소
개



55359 전북특별자치도 완주군 상관면 왜목로 726-15 (신 F:
726-15, Waemok-ro, Sanggwan-myeon, Wanju_Gun, Jeonbuk State,
Republic of Korea

대표전화 : 063-230-5400, 팩스번호 : 063-284-7863

COPYRIGHT(C) 2020. HANIL UNIVERSITY & PRESBYTERIAN
THEOLOGICAL SEMINARY. ALL RIGHTS RESERVED.

믿음,배움,섬김의 전당 호남신학대학교

호신광장

HTUS NEWS

HTUS NEWS

제목

검색어를 입력하세요!

검색

호남신학대학교, 존 로스 장학금 800만원 기탁받아



발전기금



청빙게시판



학과사이트 바로가기

기관사이트 바로가기

부속사이트 바:

개인정보처리방침

이메일
무단수집거부

CCTV
운영방침

정보공개

대학정보공시

대학재정알리미

예결산공고

이사회회의록



61642 광주광역시 남구 제중로77(양림동) TEL. 062-650-1552 Fax. 062-675-1552
77, Jejung-ro, Nam-gu, Gwangju, Republic of Korea

COPYRIGHT © HONAM THEOLOGICAL UNIVERSITY AND SEMINARY. ALL RIGHT RESERVED



발전기금



청빙게시판

한글성경 최초 번역자 존 로스 선교사 서거 110주년 기념행사
코이노니아선교회 주최로 직계후손 부산 초청, 세례식까지

최초의 한글성경 번역 선교사인 존 로스 선교사(1842-1912)의 서거 110주년을 맞아...



최초의 한글성경 번역 선교사인 존 로스 선교사(1842-1912)의 서거 110주년을 맞아...



한글성경의 주역자였던 존 로스 선교사(1842-1912)의 서거 110주년을 맞아...

로스의 선교의 주역자였던 존 로스 선교사(1842-1912)의 서거 110주년을 맞아...

에서 존 로스 선교사로부터 세례를 받고...

서울여의도에서 2025 거룩한방파제 통합국민대회
"건강한 미래 파파하는 약법, 뿌리 뽑힐 때까지" 지속키로



"우리 자녀가 대한민국 2025 거룩한방파제 통합국민대회"가 27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 앞 대입에서...

홍익세계

우리 시대를 '정부와 국회'라고 부른다. 가장 바빠서 '발달'을 쫓고...

이것을 자기 고향의 적벽을 위해 산대판을 찍어는 도우며...

“아니면 말고” 최근에는 ‘아니면 말고’가 유행어...

“아니면 말고” 최근에는 ‘아니면 말고’가 유행어...

성명서

정부와 국회는 위헌적·반민주적인 포괄적차별금지법 취지를 구현하려는, 각종 법제화 시도들을 즉각 중단·철회하라!

정부는 위헌적·반민주적인 포괄적차별금지법 취지를 구현하려는, 각종 법제화 시도들을 즉각 중단·철회하라!

우리의 요구 사항

2025년 9월 27일

거룩한방파제 통합국민대회 준비위원회

